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www.baekyoungju.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 백린 전 노인회장 29일 숙환으로 별세

서울대 초대 사서과장으로 규장각 도서 16만권 현대 목록으로 작성,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8년 교장 역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 한인 이민 1세대 대표적 지도자였던 백린 전 노인회장이 9월 30일 새벽 4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2세.

고 백린 전 회장의 웨이크는 10월 2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브루클라인 소재 보스톤 한인교회(32 Harvard St.)에서 열린다. 7시에는 입관예배가 시작된다. 장례식은 10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하관 예배는 12시 장지인 자메이카 플레인 소재 포레스트 힐 묘지(95 Forest Hills Ave)에서 열린다.

백린 전 회장은 지난 5월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2개월 시한부 삶을 선고 받았다. 이후 자신의 지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등 임종을 차분히 준비해 왔다.

정신적으로 매우 밀집한 지기였던 신영각 본지 칼럼니스트는 “본인이 이미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어느 때와 다름 없는 평상 생활을 이어갔다. 2주전에는 (이영길) 목사님을 모시고 송별예배를 봤다. 그에 앞서 지인들과 점심까지 해 가며 마지막을 섬세하게 계획적으로 준비했다.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계속 격려 해줬다



지난 2011년 보스톤코리아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 당시 고 백린 전 회장의 모습

” 고 백린 전 회장을 회고했다.

백린 전 회장은 연대 도서관 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도서관 최초의 사서관, 사서과장을 역임했다. 특히 한국 전쟁 당시 서울대 도서관의 국보였던 조선왕조실록을 부산으로 옮겨가 정리하고 3년간 보관했다가 다시 서울대로 옮겨왔다. 규장각 도서의 목록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지난 1972년 하버드 옌칭 도서관 사서로 초청받아 미국에 건너왔다. 고향자 도서를 목록

을 만들어 그 가치를 몰라 외면받던 한국도서를 옌칭의 중요 도서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그의 일은 하버드의 한국학 연구소가 있기 까지 한국과 미국 사이의 학술적인 관계에 다리를 놓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한 때 한국으로 건너가 단국대에서 역사학을 교수했었다.

백린 전 노인회장과 한인사회 많은 일을 함께했던 김은한 박사는 “백 선생님께서 인해서 많은 지식의 유입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대와 하버드의 많은 인재들이 백 선생님의 역할로 인해 많아졌다” 고 밝혔다.

한인사회에서 백 전회장의 발자취도 미국 속에 한인들의 정체성 형성으로 이어졌다. 1978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장을 맡아 1985년까지 8년간에 걸쳐 2세들의 한글 및 한국 역사 교육에 힘을 쏟았다.

당시는 한인 이민자들의 상당수가 자녀들은 반드시 미국에서 영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한국어의 필요성을 백안시 하던 때였다. 한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국학교 교육은 가시밭 길이었다. 백린 전 회장은 한국학교 운영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재정적인 궁핍이었다고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지

▶▶2면으로 계속



## 보스톤 시내 주차 요금 오른다

시간당 \$7 될 가능성, 스마트폰으로 주차비 결제 가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보스톤 다운타운과 퀘벡이 파크 일대의 거리 주차요금이 대폭 인상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4일 보스톤 글로브의 보도에 따르면 보스톤 시장 마틴 월시(Martin Walsh)가 거리주차의 적절한 주차비용을 부가하고 주차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차요금을 인상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보스톤 시(City of Boston)는 현재 주차요금이 어느 정도 증가될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보스톤 다운타운과 시 디스트릭의 거리 주차요금은 시간당 \$1.25(쿼터당 12분)이다. 샌프란시스코의 거리 주차요금은 시간당 \$7이어서 보스톤의 6배에 가깝다. 보스톤 시가 샌프란시스코의 시간당 \$7 요금제를 채택할 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보스톤 다운타운의 거리 주차요금은 최고 \$7의 요금이 부가될 경우 매번 주차할 시 \$10의 쿼터로도 부족할 수 있다. 이번 주차요금 인상에 있어 보스톤

▶▶7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무동산 매어·무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kjsung.com



From \$978  
ONLY 1 STOP  
미국 여행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항공권을 사는데 유동비용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항공권을 예매하신날부터 출발날까지도 항공권요금을 드립니다.  
30일 전 11월 3일까지, 30일 전 8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항공권에  
항공권을 판매 하는 항공권의 요금입니다.  
\*항공권 가격은 3월 15일까지이며, 가격상승에 따라 가격이  
변할 수 있습니다.

1-866-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주소: 보스턴 / 오피스: 인천에 거주 하신분께  
문의전화: 617-424-4223(Toll Free) / 617-424-8956  
웹사이트: www.lace-travel.com \*가게명: 보스톤 KCBKOREA  
54개점 해외여행: 1-877-424-4223 (한국, 24시간 상담 센터)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xtstarrealty.com



오누리 변호사  
Juno H. Cho, Esq.  
부동산 전문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ja B. Salami  
Tel: 508.424.0600  
Cell: 508.665.1544  
Fax: 508.445.1587  
juno@sonjasalami.com  
7 Muzzey St. Lexington, MA 02421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 한국 전쟁 때 규장각 도서를 지켜낸 故 백린 선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나뭇잎이 새싹을 피운 5월이었다. 백린 선생이 폐암 말기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박사를 모시고 뉴튼의 자택을 향했다. 집에 들어가자 누워있던 백 선생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잠시 흐트러져 있던 그의 눈빛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더욱 빛났다. 백 선생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어렵사리 기억을 더듬어 이야기를 시작했다.

백린 선생은 얘기 도중 여러번 규장각 도서 16만권을 현대적인 목록법에 의해 한글로 정리한 것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만큼 그의 애착을 느낀다는 얘기가.

백린 선생은 장기태 선생의 도움을 받아 규장각의 사서로 들어갔다. 이 때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 연세대에 들어가 도서관학과 역사학을 공부했다.

특히 한국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규장각의 조선왕조실록 2만권을 가지고 부산에 피난가 이를 모두 정리해 3년간 보관했다가 1951년 서울대학교 전신 연합대학을 개교했을 때 2만권을 가지고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문을 열었다.

서울대 도서관은 한국 전쟁후 북한군들이 책을 가져가려고 모두

서고에서 바닥으로 끌어내려 놓았기 때문에 엉망이었다. 당시 60만권의 도서가 바닥에 뒤굴고 있는 것을 단 3개월만에 정리를 마쳐 당시 서울대 총장이었던 최기남 총장의 지시로 서울대 최초의 도서관장이 됐다. 당시 호기현 사서장은 정리에 약 20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던 상황이었다.

백린 선생은 “모든 일이 열성과 시기가 맞아야 한다. 그 사람 능력이 있을 때 반드시 시기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 어떻게 남이 20년 걸리는데 나는 3개월에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부산에 도서관에 2만권을 가지고 내려가서 1년 반 동안 도서 정리를 할 때 이 경험을 살린 것이다” 라고 말했다.

서울대 도서관장으로 재직하면서 규장각 도서 16만권의 현대목록을 작성하게 됐다. 규장각 도서가 하버드에 왔을 때 그 목록의 작성자를 찾게 됐고 그게 인연이 되어 하버드 연청 도서관의 사서로 초청됐다. 69년 1년동안 재직했지만 서울대의 요청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72년 다시 도미했다.

20여년간 하버드 연청도서관 사서로 근무한 후 1993년 은퇴했다. 한국인이 없어 연청의 도서목록이 모두 중국식으로 되었던 것을 한국

식으로 바로 잡았다. 모두 도서목록을 손으로 작성에 손이 굳을 정도였다. 한 번은 연청의 와그너 관장이 한국 고서를 들고와 언제의 책이냐고 물어 육감에 따른 기록과 종이 질로 연도를 예측했다. 이렇게 육감을 이야기 하자 그 이후로는 매년 새해에 띠와 동물의 의미를 물어 설명하곤 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보스톤 한인교회에서도 매년 새해에 이를 설명하고 덕담을 건넸다.

1978년에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2대 교장을 맡아 8년간 재직했다. 그는 뉴잉글랜드 개교 30주년 문집에서 교장을 맡은 후 한국학교를 3번이나 옮겨야 했고 재정적으로 궁핍했음을 자세하게 기록했다. 1985년 조성구 당시 한인회장의 요구로 한국학교를 폐쇄하고 성요한 교회에 이를 넘겼다.

이외에 2대 노인회장을 역임하며 노인대학을 만드는 등 노인회 활동은 물론 미주 한인이민 백주년을 기념해 역사편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뉴잉글랜드 한인사를 작성하는데 큰 힘을 쏟았다.

백린 선생은 한인들에게 1. 왜 미국에 이민했는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한다. 2. 학교를 다닐 것인가 장사를 할 것인가. 확실히 자신을



지난 5월 28일 뉴튼 소재 자택에서

알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을 알라. 3. 열심히 살아야 한다. 가져온 것이 없고 능력이 모자라도 거짓말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4. 이민사회 사람이나 서로 사랑해라. 5. 건실하게 한인사회 역사를 발전시켜 가야 한다. 고 조언했다.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백린 선생은 몇번 기침으로 말을 멈추곤 했다. 청력이 많이 떨어져 질문을 종이에 써서 던져야 했으며 기억력도 많이 떨어져 정확한 연도를 틀리는 경우도 있었다. 부인 최선경 여사가 이를 바로 잡아주었다.

의사의 선고는 짧은 2개월이었지만 차분히 주변을 정리했던 백린 선생은 9월 마지막날 가을비가 쏟아지던 새벽 세상을 떠났다.

editor@bostonkorea.com

## 한인사회 별이 지다

▶▶ 1면에 이어서

에서 밝혔다. 교장 재임시절 한국학교를 무려 3번이나 옮겨야 했다. 결국 모기관이었던 한인회의 폐지 주장에 따라 성요한 교회에 한국학교를 인수인계하는 아픔을 겪었다.

백 전 회장은 또 한미 노인회 2대 회장을 맡아 노인회의 부흥을 이끌었으며 별세한 박경민 박사를 노인대학장으로 노인대학을 만들어 많은 호응을 받았다. 노인회장직을 그만 둔 후 노인회는 노인대학 문제로 내홍을 겪어 상당한 위축을 맛보아야 했다.

백린 전 회장은 보스톤 역사문제 연구소 소장으로서 이민 백주년사를 작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2006년부터는 보스톤 코리아 칼럼니스트로서 꾸준한 역사 관련 칼럼을 연재해 왔다. 이 칼럼으로 한국 역사에 관한 새로운 사실과 관점을 제시했다. “꼭 쓰고 싶었던 칼럼은 위안부에 관한 것이었는데 아쉽다” 고 백 전 회장은 지난 5월 자택 인터뷰에서 밝혔다.

브루클라인 소재 보스톤 한인교회 장로로서 오랫동안 봉직했다. 매해 신년 예배 때는 그해의 12지 상징 동물 그리고 역사적 의미를 구수한 말로 풀었다. 새해가 백린 장로의 덕담으로 시작됐던 것이다. 이제 그의 새해 덕담은 보스톤 한인교회 역사로만 남게 됐다.

미망인 최선경 권사와의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다. 장례와 관련한 문의는 617-244-6383으로 하면 된다.

editor@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톡스 & 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펌 그리고 스킨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 매직 스트레이트 Magic Straightening
- 브라질 케라틴 브라질 케라틴 Brazilian Keratin Treatment
- 스레딩 Threading
- 디지털 펌 & 셋팅 펌 Digital Perm & Setting Perm
- 아이론 펌 Iron Perm
- 헤어 컬러링 Coloring (GOLDWELL 사용)
-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 메니큐어 & 피디큐어 Manicure & Pedicure
- 왁싱 Waxing
- 얼굴 마사지 Facials
-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샵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문화식물원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 한국 송금 빠르고 저렴하게



머니그램과 웨스턴 유니온으로 10분안에 송금 가능  
머니그램 16달러, 웨스턴 유니온 14달러 수수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사 = 추석이면 한국으로 송금하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가끔 들어온다. 한국 송금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시간과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미국은행 브로크아메리카(BOA)를 통해 한국송금을 할 경우 \$45의 높은 수수료가 붙게 되고 이틀에서 삼일 정도의 시간이 소모된다. 한편 시티뱅크는 ATM과 온라인 뱅킹을 통해 수수료 10달러에 한국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 고객은 온라인 뱅킹으로 1회 \$1000, 본점이나 ATM에서는 1회 \$3000, 1주일에 최고 1만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하다.

이러 은행을 통해서 송금할 경우, 한국 은행에서 또 다른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샌탠더(Santander)은행의 경우는 수수료가 3번이나 붙게되어 더 많은 수수료가 부담된다. 샌탠더나 시티즌뱅크(Citizens Bank)는 현지와 달러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확인을 한 후 송금을 해야한다.

이 같은 이중 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은행통장(계좌번호)이나 신용

카드 없이 해외로 송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머니그램(moneygram.com)과 웨스턴 유니온(westernunion.com)을 소개한다. 머니그램이나 웨스턴 유니온을 사용할 경우 한쪽에서만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한국송금 및 현금 인출이 더 수월해진다.

머니그램과 웨스턴 유니온은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들의 차이점은 수수료의 차이와 송금승인번호(Reference Number)의 자리 수의 차이 외에는 모든 것이 동일하다.

머니그램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송금이 가능하며 신용카드나 데빗카드를 사용하면 직접 가까운 가맹점을 통해 송금을 할 수 있다. 머니그램은 가까운 CVS 약국(CVS Pharmacy), 세븐 일레븐, 스타&쇼마켓(STAR/SHAW MARKET) 외 식당에 가맹점이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 반면 웨스턴 유니온은 가까운 라이트 에이드(Rite Aid)나 월그린(WALGREENS) 외 편의점에서 찾을 수 있다.

머니그램과 웨스턴 유니온의 서비스는 전용 머니그램 송금망을 이용하

는 해외송금 서비스로 10분 이내로 송금이 가능하며 10분 안으로 수령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머니그램과 웨스턴 유니온은 해외 유학생이나 여행객들이 긴급히 돈이 필요할 경우 수취인이 언제든지 즉시 수령할 수 있어 편하고 신속한 송금서비스다. 머니그램의 1회 송금한도는 \$7000 이하다. 머니그램의 수수료는 \$1000에 \$16, \$2000에 \$39.22를 받고 있다. 웨스턴 유니온은 똑 같은 송금한도에 수수료가 \$1000에 \$14, \$2000에 \$18을 받고 있어 머니그램 보다는 저렴하다.

현재 머니그램의 경우 한국의 우리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 머니그램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웨스턴 유니온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BS부산은행, DGB대구은행 전 지점들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머니그램 & 웨스턴 유니온 송금방식**  
1. 신분증(여권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지점을 방문해 송금신청서를 작성한다.

2. 신청서상에 송금액, 송금인명, 수취인 국가, 수취인 성명 등을 작성한다.

3. 영수증을 수령해 송금승인번호(머니그램자리, 웨스턴 유니온 10자리)를 확인 한다.

4. 수취인에게 연락해 송금인명, 송금액, 승인번호(Reference Number), 송금국가의 정보를 알린다.

5. 수취인이 가까운 가맹점에 방문해 송금승인번호(Reference Number)와 본인의 신분증을 가져가 수취인성명 대조 후 자금을 찾을 수 있다.

머니그램과 웨스턴 유니온은 송금액이 높을수록 수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은행 송금과 비교해본 후 수수료가 낮은 쪽으로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어 송금된 국가의 은행마다 수수료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수취인과 가깝고 수수료가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도 미리 고려해야 한다.

jham@bostonkorea.com



뉴잉글랜드 보스톤 성균관대 동문회 정기 모임이 오는 17일 토요일에 열린다. 사진은 지난 성균관대 동문들의 모습

## NE 보스톤 성균관대 동문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보스톤 성균관대 동문회(회장 김성균) 정기 모임이 오는 17일 토요일 오후 6시 김 회장 자택에서 열린다.

김 회장은 “보스톤 성균관대 동문들은 매년 모여 화합을 다짐한다”며 “성균인들은 617년 개교역사와 인의예지의 덕목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동문회는 정기모임의 부부동반 골프대회 등 행사들로 꾸준히 모임을 가져왔다.

성대동문회에 대한 문의는 김성균 회장 (이메일 : info@songkkimlaw.com, 전화 : 781-438-6170)에게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 SAT Plus Fall Sched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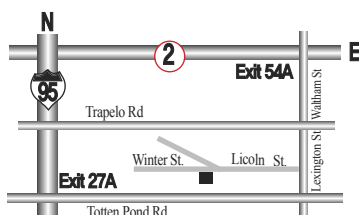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Starting Setember 12, 2015

Class	Time
PSAT / SAT Prep ( New )	9:00 AM – 11:00 AM Saturday
SAT Prep ( Old )	1:00 PM – 3:00 PM Saturday
PSAT /SAT Prep	3:30 PM – 5:30 PM Saturday

Individual Tutoring	2: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
---------------------	--------------------------------------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 불우한 여성 위한 자선 모금 패션쇼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오는 9일 토요일 오후 6시 아시아우먼 포헬스(Asian Women for Health)에서 주최하는 자선패션쇼(Celebr Asians: A Benefit Fashion Show)가 브루크라인소재 보스톤 한인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시민협회 회장인 이경해 회장과 아시아우먼포헬스의 사무총장 치 엔치 황(Chien-Chi Huang)과 함께 주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암을 이겨낸 생존자들의 상담과 후원을 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 회장은 “우리 모두 ‘자신보다’ 힘든 불우한 여성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며 “그 이유는 우리가 좀 더 나은 입장에서 살고, 이런 불우한 여성들 중 소외된 한국여성들이 많다” 고 말했다.

이번 행사의 입장료는 온라인 구매시 \$85이며 당일 날 입장료를 구매할 경우 \$100이다. 티켓은 다음 링크에서 구매할 수 있다. (<https://www.eventbrite.com/e/2015-celebrasians-benefit-fashion-show-tickets-17526958605>)

행사일정



일시: 2015년 10월 9일 토요일 오후 6시~9시  
장소: 보스톤 한인교회(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 보스톤 산악회 제17차 정기산행 공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산악회(회장 현정원)가 오는 10일 토요일 뉴햄프셔 소재 마운트 초코루아(Mt. Chocorua, Chamney Falls-Piper trail.)로 17차 정기산행을 간다.

이번 산행의 거리는 왕복 (Chamney Falls-Piper trail.) 7.6이며 산행시간은 5시간이다.

마우트 제퍼슨의 높이는 대략 3478 피트이며 오름 높이는 2300피트이기에 난이도는 보통(중급) 정도이다.

준비물은 배낭과 방풍의, 우의, 장갑, 모자, 스틱, 식수, 간편 중식이며 등산화 착용은 필수다.

집결지는 울스턴 공영주차장(오전 6시)과 Park&Ride Exit2 of RT93(오전 6시 45분)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산행당일 회비 \$20을 지참해야 한다. 산행신청 마감날은 오는 8일 목요일 오후 6시다.

기타 문의사항은 781-572-5898로 할 수 있으며 산행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보스톤 산악회 카페 웹사이트([cafe.daum.net/bostonmountaineers](http://cafe.daum.net/bostonmountaineers))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산행일: 2015년 10월 10일 토요일  
집결지: 울스턴 공영주차장 오전 6시



Park&Ride, Exit2 of RT93 오전 6시 45분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국제선 보스톤 지회가 지난 9월 27일 2세와 1.5세 자녀들과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 국제선 보스톤 지회 한인 자녀들 교제 및 만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국제선 보스톤 지회(보스톤 국제결혼가정선교회, 회장 이은주)가 지난 9월 27일 일요일 3시에 국제선교회 소지(57 Peter St, N.Andover, MA.01845)에서 2세와 1.5세 자녀들과 만찬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국제 결혼 2세대와 한인자녀 1.5세들이 함께 뜻을 나누며 미국 입양아들을 위주로 사회복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한 자리다. 만찬에는 엄성준 보스톤 총영사, 김경원 한인회장, 한선우 민주평통 회장 외 보스톤 한인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특별히 이번 모임에는 채널 7의 아나운서 자넷 우(Janet Wu)씨가 초청 연사로 참석했다.

만찬은 엄성준 총영사의 인사와 김경원 회장의 축사로 시작 됐다. 이어 자넷 우씨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자넷 우씨는 미국에서 한인 혼혈아로 자라며 겪었던 어려움과 어머니의 끈임없는 희생으로 성공한 삶에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아울러 “자신 또한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고 전했다.

이 회장은 국제선교회에서 주최한 자녀들의 교제 및 만찬의 모임은 “모두 뜻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고 말했다.

국제선교회의 앞으로의 행사와 참여 관련에 대한 문의는 이은주 회장 (978-394-921) 통해 알 수 있다.  
[bostonkorea@hotmail.com](mailto:bostonkorea@hotmail.com)

###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http://www.yasuboston.com)



##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마을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5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5



단체예약  
주문음식





## 첼로와 가야금이 만나는 가을 연주회

보스톤한미문화재단 가을 연주회 '마을 거리에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미문화재단 (KACF: Korean American Cultural Foundation of Greater Boston)은 오는 17일 토요일 오후 7시 브룩라인에 위치한 보스톤 한인교회 ECC건물에서 가을 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마을 거리에서(At the Village Crossroads)"의 주제의 "서양과 동양의 음악과 휴식이 만나는 밤(An Evening of Eastern and Western Music and Desserts)"의 제목으로 펼쳐진다.

이날 행사는 마이클 토마스 푸마이(Michael-Thomas Foumai)의 보스톤 프리미어 빌리지 뮤직(Boston Premier of Village Music)의 현악 공연으로 가야금, 판소리, 클라

리넷, 첼로, 바이올린등이 선보일 예정이며 화음 보스톤 챔버 오케스트라와 브로드웨이 투 보스톤(b2b Theatre)의 피쳐링이 이어진다.

티켓문의는 다음 이메일(info@koreancultureboston.org)이나 전화번호(617-561-0837)로 하면 된다.

보스톤한미문화재단(KACF)은 한국의 풍부한 예술과 문화 유산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한인 문화 예술가들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2007년에 설립된 재단이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 32 Harvard Street, Brookline, MA

bostonkorean@hotmail.com

## 보스톤 최고의 한식당 독자 투표 9일 마감, 이메일 투표 가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보스톤코리아가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진행중인 보스톤 최고 한식당 공모전 독자 투표가 오는 9일 금요일 마감한다. 현재 약 450여명이 독자가 응모했다.

이번 최고 한식당 공모전 의 상품으로는 1등 한국 왕복행 티켓, 2등 애플워치 외 쿠키전기밥솥(6인분), 티보 엔티비 1년 시청권 등이 증정된다.

한식당 투표 참여방법은 신문의 광고의 응모지를 올려서 보내거나 인터넷 광고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보스톤코리아 주소로 보내면 된다. 또한 인터넷에서 응모용지를 다운 받아 bostonkorean@hotmail.com 이메일로 응모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서 보내면 된다. 특히 이메일 응모시 선정한식당 2곳,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요건 중 1개라도 빠지는 경우 한식당 추천표 및 경품 추천 모두에서 제외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0월9일까지 총집계된 최고 한식당 선정 결과는 16일 발표될 예정이며 오는 11월 21일 개최되는 보스톤코리아 10주년 기념만찬에서 수상한다. 상품 선정 결과도 16일자 보스톤코리아 지면과 웹사이트를 통해 동시 공개된다.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대표는 "이번 한식당 선정은 보스톤 한식당에 대한 한인들과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더 좋은 한식당 발전을 위해 계획한 것" 이라고 밝히고 "많은 독자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푸짐한 상품도 받아가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보스톤코리아는 내년 한인회와 공동으로 최고 한식집 선정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한인회와 추후 긴밀히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jham@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다인 Dain Yoo  
함요한 John Ham  
한태정 Taijung Han

Graphic Designer

정현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현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괵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휴일제 | 연합뉴스사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지난 9월 26일 토요일 오후 Stow Acres Country Club에서 40여명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과기협 뉴잉글랜드지부 골프대회

## 과기협 뉴잉글랜드 지부 골프대회 성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 과학기술자 협회 뉴잉글랜드 지부(회장 이현희)가 주최한 가을 정기 골프대회가 지난 9월 26일 토요일 오후 Stow Acres Country Club에서 40여명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한 회원들은 대회 전에 연습장에서 최성조 골프 코치의 원포인트 레슨과 함께 게임 전 준비를 했다.

이현희 회장은 “좋은 날씨에 많은 회원들과 함께 즐거운 골프와 네트워

킹을 하는 시간이 되었다” 며 “빠른 그린과 홀 포지션은 많은 선수들에게 도전이 되었지만 회원들이 각자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 고 전했다.

대회 후에 저녁식사와 후원사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과기협 측은 ‘오는 11월에 MIT 한인 대학원 학생회와 공동주최로 예정된 career development workshop 등 앞으로 있을 행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고 전했다.

후원단체와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후원단체 SK, KABIC, NEBS, FRAGOMEN, Family Dental care(김동원), Millipore, Twin City Animal Hospital (윤상래), 이강원, 이정일, 신상철, 최성조, 장영규 수상자 Champion: 이승훈 (+7) 1등: 조진행 (+10) 근접상: 최준영, 강가브리엘 장타상: 이승훈

bostonkorean@hotmail.com

## 한미노인회 사랑방 모임 및 단풍나들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한미노인회(회장 유영심)의 사랑방 정기 모임이 매달 첫째주와 셋째 주 수요일에 모인다.

보스톤한미노인회의 10월 행사로는 오는 10월 토요일 단풍나들이가 있으며 오는 7일과 21일에는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사랑방 모임을 갖게된다.

단풍나들이는 성요한교회에서 오전

8시 30분, 북부 보스톤교회에서 오전 9시 출발예정이다. 이번 단풍나들이 장소는 윈페스키 레이크이며 배(\$25)와 기차(\$15)를 이용할 경우 각자 입장료를 가져와야 한다. (선착순 50명)

보스톤한미노인회 행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유영심 회장 (yongsim7@gmail.com/978-994-5490)을 통해 알 수 있다.

**행사일정**  
**▶사랑방 모임**  
 일시: 2015년 10월 7, 21일 수요일 오전 10시~2시  
 장소: 국제선 교회 (57 Peter St, N.Andover, MA,01845)  
**▶단풍나들이**  
 일시: 2015년 10월 10일 토요일  
 장소: Winnepesaukee Lake (NH)

## NE 고려대학교 교우회 모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고려대학교 교우회(회장 이태호)가 지난 9월 26일 토요일 케임브리지 MIT의 Eastgate 29층 펜타 하우스에서 모임을 가졌다.

모임에 참석한 30여 명의 교우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보스톤에 새로운 교우들을 환영하며 즐

오는 3일에 있을 대학연합 골프대회 안내와 필승을 다짐하였으며 특히 12월 연재호 신임 고려대학교 총장의 보스톤 방문 소식을 전하며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또한, 모임의 음식을 준비한 이문항(사회 80) 교우와 임원진에 감사사를 표했다.

이번 모임은 전인탁(재료공 03)



뉴잉글랜드 고려대학교 교우회가 지난 9월 26일 MIT의 Eastgate 29층 펜타 하우스에서 모임을 가졌다

거운 시간을 나눴다.

이태호 회장은 개회사에서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한 교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지난 1년간의 교우회 행사를 소개하고 보스톤 한인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후원한 단체들을 소개했으며 앞으로 많은 교우의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문수(경제 83) 전 교우회장은

교우의 선창으로 교가와 교호를 제창함으로 모임을 마쳤다.

다음 모임은 오는 12월 10일 송년회 겸 고대 연재호 총장과 함께 친목을 다질 예정이다. 고대 교우회에 대한 문의는 이태호 (617-780-2999, tlee0813@hotmail.com), 전인탁 (857-998-3318, in-gome22@gmail.com)에게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뉴잉글랜드 가을 대축제 '탑스필드 페어'

미술쇼, 음악 콘서트, 호박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 제공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뉴잉글랜드에서 매년 열리는 농축산물 축제 탑스필드 페어(Topsfield Fair)가 오는 2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된다. 12일 월요일까지 열리는 이 축제에는 다양한 공연들과 먹거리가 풍성하고 전시회 외 놀이기구, 농경체험 등이 제공된다.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나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풍이 아름다운 10월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매일 제공되는 이벤트나 퍼포먼스가 조금씩 다르다. 뉴잉글랜드 최대의 자이언트 호박 대회, 알파카 등의 농장 동물 구경, 소꿉기, 매직쇼, 모델기차 전시회, 음악 콘서트, 몬스터 트럭 쇼 등 다양하고 진기한 이벤트가 매일 다르게 열리

로 반드시 탑스필드 페어 홈페이지(<http://www.topsfield-fair.org/dailyschedule2015.php>)에서 스케줄을 확인하고 가는 것을 권장한다.

가족과 함께 도시락을 챙겨 탑스필드 페어에 놀러 가는 것은 돈을 절약한 현명한 방법이다. 이 같은 축제 이벤트의 음식은 양이 적고 가격이 비쌀 수 있기에 집에서 샌드위치나 김밥을 만들어 가져오면 더욱 단란한 시간을 보내면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탑스필드 페어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이기 때문에 장소 입구까지 많은 차량들이 붐빈다. 하지만 행사 장소에서 조금 떨어져 위치한 노스쇼어 커뮤니티칼리지(North Shore Community College-Route 95 Exit 50)나 매스콘노메트

저널 하이스쿨(Masconomet Regional High School - Route 95 Exit 51)에 주차하면 무료셔틀을 이용해 축제에 갈 수 있다. 다만 주말에는 Exit 50으로 나갈 경우 도로에서 한참을 기다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두 장소의 주차비는 \$5이므로 축제 안 주차비 \$10의 절반 가격인 셈이다.

탑스필드 페어의 입장료는 평일 \$11, 주말(휴일 및 10일 포함) \$15이며 어른을 동반한 8세 미만 어린이는 무료 입장이다. 3일 내내 즐길 수 있는 티켓은 \$25이다. 5일과 12일 월요일에는 60세 이상 노인은 \$8이며 6일 화요일에는 군인 가족들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탑스필드 페어의 주소는 207 Boston Street, Topsfield, MA 01983이다. 더 자세한 문외는 978-887-5000 이 나 웹사이트 [www.topsfieldfair.org](http://www.topsfieldfair.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ham@bostonkorea.com

## '슈퍼 블러드 문' 33년만에 나타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지난 27일, 추석 밤 10시경 보스톤 하늘에 '슈퍼 블러드 문' 이 모습을 드러냈다. '슈퍼 블러드 문' 은 33년 만에 나타난 매우 보기 드문 보름달이다.

'슈퍼 문' 은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 지는 때를 가리켜 가장 큰 보름달을 일컫는다. 이번 '슈퍼 문' 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개기 월식의 현상과 겹쳐졌기 때문이다.

개기 월식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일직선 상에 놓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때,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면서 태양의 붉은빛이 달의 표면에 반사돼 '슈퍼 문' 의 색이 붉은빛을 띠게된다. 이것을 '슈퍼 블러드 문' 이라고 한다.

'슈퍼 블러드 문' 의 현상은 북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일부에서 관측됐다.



지난 25일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NASA의 프로그램 과학자 사라 노블(Sarah Noble)씨가 "슈퍼 블러드 문은 전세계인들이 일출과 일몰을 달을 통해 한꺼번에 목격하는 현상" 이라고 밝혔다.

'슈퍼 블러드 문' 은 1982년 이후 33년만에 나타난 것이며 18년 후인 2033년에 다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jham@bostonkorea.com

## 코인 미터기를 신용카드 사용 가능한 모델로 바꿀 계획

▶▶1면에 이어서

시는 약 6백만 달러를 투자해 보스톤 거리에 있는 약 8000개의 코인 주차미터기를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적어도 코인을 찾아서 편의점을 해매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스톤코리아는 보스톤 글로브의 기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보스톤 시에 접촉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대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월시 시장은 과거에도 최신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주차 비용을 언급해왔다.

보스톤 시는 카플리 와 뉴버리 스트리트(Newnury Street)주위에 파크 보스톤

(Park Boston) 앱을 만들어 스마트폰을 통해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스톤 시의 거리 주차요금 인상과 관련해 한인 C씨는 "도시에 차를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것과 같다" 며 "앞으로 보스톤 방문시에는 대중교통을 사용해야겠다" 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한인 A씨는 거리 주차요금이 적절하게 올라가고 주차가 편리할 경우 "시내의 시간당 \$30하는 주차요금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차를 주차하기 편해질 것이다" 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표했다.

jham@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빙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shah.cpa@gmail.com

[www.mhancpa.com](http://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 엘엘빈(L.L. Bean) 빈부츠 올해도 불티난다

크리스마스 선물 지금 주문해야  
올 12월 초까지는 현재 6만여 주문이 밀려 있는 상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메인소재 엘엘 빈(L.L. Bean)이 제작하는 가죽 고무 부츠가 올해도 수요에 공급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빈 부츠(Bean Boots)를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주문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엘엘 빈의 웹사이트 주문을 확인한 결과 부츠의 일부 사이즈는 내년 1월 4일에야 배송 받을 수 있으며 또 다른 일부 사이즈 부츠는 11월 23일에야 배송

이 가능하다. 엘엘빈은 지난 연말 시즌 이래 계속해서 공급이 주문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올 12월 초까지는 현재 6만여 주문이 밀려 있는 상태이다.

엘엘빈은 지난 6월부터 100명의 부츠 제작 직원을 늘리고 백만불의 기계 설비를 늘려 대량생산을 시작해 7월부터 밀린 주문 양 적체를 해소했다. 이 회사는 공장을 거의 24시간 체제로 가동하고 있지만 9월 새학기가 시작되고 주문이 늘면서 주문량 적체가 시작되

고 있다.

엘엘빈의 대변인 캐롤린 빔 씨는 “부츠가 많은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인기인 것에 정말 기쁘다.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겨울이 되기전 미리 주문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014년에는 총 45만개의 부츠를 판매했으며 올해는 이보다 많은 약 50만개의 부츠를 판매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회사는 만약 웹사이트를 통해 올겨울 이전까지 주문이 어려울 경우 벌링톤, 맨스필드 그리고 데드햄 소재 매장을 찾아 사이즈를 점검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100년 전통의 빈 부츠는 지금까지도 수작업으로 직접 재봉질 해 최고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다



## 엘엘빈 빈부츠 왜 인기인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폭설후 많은 사람들이 갈색과 검은 고무로 하단부가 만들어진 부츠를 신은 것을 봤다면 그것은 엘엘빈의 빈부츠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빈부츠는 결코 한 시즌만의 반짝 인기 제품이 아니다. 이 제품은 무려 100년 동안 거의 변함없이 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부츠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기를 얻었던 적도 또는 시들했던 적도 있었다. 이 과정을 겪으며 이 부츠는 엘엘 빈의 비공식적 마스코트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메인주의 사냥용으로 만들어진 이 부츠는 한뼘 한뼘 장인의 손길로 만들어졌던 부츠였다. 이제는 현대식 기술이 더해졌지만 여전히 재봉틀과 손을 이용해 바느질 하기 때문에 그 전통의 부츠 품질은 여전하다.

눈이 올 때면 대학과 고등학교 대부분의 학생들이 신고 있는 이 부츠가 왜 인기인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 백년동안 인기를 잃지 않은 전통의 제품. 엘엘빈의 창시자 레온

레온우드 빈은 1911년부터 그의 메인 사냥 부츠를 팔기 시작했다. 이 부츠는 지금까지도 거의 같은 디자인을 유지하여 판매하는 전통의 제품이다. 소비자들은 단순한 신발뿐만 아니라 100년동안 이어져온 역사를 신게 된다.

이 부츠는 디자인과 제조방법이 메인 사냥 부츠로 소개되었던 100년전과 전혀 바뀌지 않았다. 늘 야외활동을 즐겼던 빈은 사냥과 낚시를 위해 이 부츠를 디자인했다. 최초에는 모든 부분이 가죽이었지만 찢지 않는 편안한 발을 위해 밑부분에 고무를 꿰매 덧대는 아이디어를 내어 오늘의 빈부츠가 탄생했다.

• 아주 좋은 가치. 가장 기본모델의 부츠는 \$99로 저렴하다. 더구나 100%만족을 지향한다.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떤 이유이건 리턴이 가능하다.

• 방탄부츠라 불릴만큼 단단한 품질. 기능성 측면에서 거의 완벽하게 흠이 없는 부츠로 잘 알려져 있다. 한번 사면 평생을 신는다는 말처럼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거의 한번 부츠를 사면 십년 이상을 사용한다.

hsb@bostonkorea.com

오바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 가을에 걷기 좋은 보스톤의 '올레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태정 기자 = 매일 25분씩 빠르게 걸으면 수명이 최고 7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지난 8월 유럽심장학회 회의에 보고된 연구 결과를 인용, 적당한 운동은 50-60대의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절반으로 낮춘다고 전했다. 또한, 독일 자를란트대학 연구팀이 30-60세 남녀 69명을 대상으로 규칙적 운동이 신체에 가져오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6개월 이내에 혈액 내에 DNA 복구를 돕는 변화를 확인했다. 즉, 규칙적으로 걷기만 해도 노화가 늦춰짐은 물론,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 발생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조지 워싱턴대 도시 부동산 분석 센터에서는 “걷기 좋은 도시 일수록 1인당 GDP와 대학 진학률이 모두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내놓았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보행 친화지수가 최상인 그룹이 최하위 그룹에 비해 일인당 GDP가 최고 38%까지 높았다. 동 연구에서 보스톤은 미국 내 대도시 중 가장 걷기 좋은 도시 중 워싱턴 D.C와 뉴욕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걷기 좋은 도시, 보스톤의 매력과 혜택을 맘껏 누릴 수 있는 '보스톤의 올레길'은 어디인지 함께 알아보기로 하자.

▶ 커먼웰스 애비뉴(Commonwealth Ave.)  
보스톤 퍼블릭 가든에서 매사추세츠 애비뉴에

이르는 구간을 커먼웰스 애비뉴를 통해 걸어보자. 도심 속에서도 한적한 산책을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백 베이(Back Bay)의 브라운 스톤이 분위기를 더 한다. 조금 더 조용하고 아늑한 산책을 즐기고 싶다면, 커먼웰스 애비뉴 대신 말버러(Marlborough St.) 스트리트를 추천한다. 작지만 아름답게 가꿔진 브라운 스톤 아파트들의 앞뜰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 보스톤 하버워크(Boston Harborwalk)  
겨울이 오기 전 꼭 한 번 걸어보면 좋을 보스톤 하버워크, ICA (The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나 노스엔드(North End)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파크(Christopher Columbus Park)에서 시작하여 보스톤 항구를 따라 걸을 수 있는 길로 특히 ICA 가까이 위치한 팬 피어 파크(Fan Pier Park)에서 바라보는 보스톤의 전경이 아름답다.



▶ 비컨 힐(Beacon hill)  
비컨 힐의 가장 변화한 거리인 찰스 스트리트(Charles St)만 다녀왔다면 이번 가을엔 조금 더 골목 골목을 누벼보자. 레드 라인 MGH역과 블루 라인 보우도인(Bowdoin)역 사이의 필립스 스트리트(Philips St.)나 머틀 스트리트(Myrtle St.) 모두 천천히 걸으며 즐기기에 좋다. 특히 에이콘 스트리트(Acorn St.)는 사진촬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들러야 할 거리이다.



▶ 메모리얼 드라이브(Memorial Drive)  
4월 마지막 주부터 11월 둘째 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웨스턴 애비뉴(Western Ave.) 부터 마운트 오번 스트리트(Mount Auburn St.) 구간이 차량이 통제된 보행자 거리로 탈바꿈한다.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 등을 즐기기에 좋으며, 하버드 스퀘어에서 가까워 일요일 오후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 케리지 로드(Carriage Road)  
보스톤 마라톤 코스로 더욱 잘 알려진 길로 보스톤 컬리지(Boston College)에서 시작하여 커먼웰스 애비뉴를 따라 뉴튼(Newton)으로 이어지는 14마일 정도의 코스다. 특히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워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기에도 좋다.

htj@bostonkorea.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 은혜한의원에서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 요통, 어깨, 목, 허리 통증 등 각종 통증질환
- 유선, 전두두통, 두통, 두근거림, 어지러움
-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 코골이
- 관상 동맥질환, 심장 질환, 고혈압
- 요통, 어깨, 목, 허리 통증 등 각종 통증질환
- 유선, 전두두통, 두통, 두근거림, 어지러움
-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 코골이
- 관상 동맥질환, 심장 질환, 고혈압
- 요통, 어깨, 목, 허리 통증 등 각종 통증질환
- 유선, 전두두통, 두통, 두근거림, 어지러움
-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 코골이
- 관상 동맥질환, 심장 질환, 고혈압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메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고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http://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mailto: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 MA주 휘발유 가격 12주 연속 하락

1년 전과 비교하여 갤런당 1.24달러 내려  
일부 주유소에는 갤런당 2달러 이하로 판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12주 연속으로 하락하며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7월 초 이후 휘발유 가격이 매주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것이다.

트리플 에이 동북부지구에서 지난 28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에서 셀프 주유로 일반 휘발유를 주유할 경우 갤런당 평균 가격은 2.14달러이다. 이전 주와 비교하여 휘발유 가격이 5센트 더 떨어졌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의 휘발유 가격은 미국 평균과 비교하여도 15센트 저렴한 편이다. 매사추세츠 내에서의 가격 변화를 살펴보면 1달 전과 비교하여 가격이 15센트 내렸고, 1년 전과 비교하면 갤런당 가격이 1.24달러나 하락했다.

트리플 에이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에서 셀프 서비스로 일반 휘발유를 주유할 때 가장 저렴한 곳은 1.94달러, 가장 비싼 곳은 2.69달러였다.

트리플 에이 동북부지구의 메리 매

과이어 공보 수석은 "휘발유 가격이 이 정도로 떨어졌던 때는 지난 겨울 한참 폭설이 내릴 때였다"며 "휘발유 공급이 많은데 비해 수요가 적어 운전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일부 지역의 주유소에서는 갤런당 2달러 이하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휘발유 가격은 크루드산 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크루드산 원유는 지난 여름 이후로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중국과 유럽 지역에서의 에너지 소비가 기대 이하인데다가 미국에서의 생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jsi@bostonkorea.com



중국과 유럽 지역의 경기 둔화로 휘발유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전미 교사 노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매사추세츠 교사 노조는 클린턴 힐러리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거부했다

## MA주 교사 노조 힐러리 지지 거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10월 1일 매사추세츠 주를 방문하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그다지 반갑지 않은 소식을 매사추세츠 주에서 접하게 되었다. 힐러리 후보의 바램과는 달리 매사추세츠 교사 노조가 힐러리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사추세츠 교사 노조의 바바라 매델오니 회장은 웹사이트를 통해 "이렇게 일찍 노조 차원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다른 회원들이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막아버린다"며 "회원 간의 의사 소통은 민주적인 노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밝혔다.

매델오니 회장에 따르면 전미 교사 노조에서 매사추세츠 교사 노조가 힐러리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는 발표를 하도록 종용해 왔다. 그러나 매델오니 회장은 노조원들이 강한 목소리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교사 노조는 최근 임원진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어떤 후보든지 상관 없이 선거 초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매사추세츠 교사 노조의 입장이 정해졌다.

jsi@bostonkorea.com

정관장 홍삼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보편드스토어'에서 구입하여 안전합니다.

### 하루 2번 습관

건강을 지키는 습관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증정

**FREE**

- ✓가벼워짐
- ✓항암효과
- ✓면역력 증진
- ✓혈액순환 개선
- ✓안노 합병증 예방
- ✓혈당 조절 효과 개선
- ✓간염 산양 기능 개선
- ✓기억력 개선

홍삼에도 격이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최선을 드세요.

정관장 홍삼의 엄격한 제품 관리 기준은 의약품 제조도 가능한 수준으로 한국, 일본 GMP 및 HACCP 인증을 획득할 정도로 품질면에서 우수합니다.

최대한 크 이싱의 빠른 배송 농인비소오일

8년근 홍삼의 진한 피부과학 동인비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보편드스토어

8 Old Concord Pld, Burlington, MA 01808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 가정 방문 영양제 링거주사 곧 보스톤에서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숙취나 과로로 기력이 없거나 플루로 아주 힘들 때 영양제 및 진통소염제 링거주사를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링거주사 회사들이 보스톤에서도 개업할 예정이다.

가정방문 링거 정맥주사 서비스 회사인 아이비 닥(I.V. Doc)이 오는 10월 말 쯤 보스톤에 진출할 것이라고 보스톤 글로벌가 회사 관계자를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이 회사는 현재 뉴욕, 라스베가스 그리고 LA 등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 회사는 간호사를 가정이나 오피스로 파견하며 이 간호사들은 비타민과 미네랄 또는 의약품을 담은 링거를 놔준다. 아이비 닥에 따르면 링거를 통해 수분을 공급함으로써 과로나 피로를 회복할 수 있게 해준다.

이 회사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링거는 플루, 시차피로, 그리고 식중독 등으로 고통 받는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하며 가격은 최저 \$150에서 최고 \$400에 달한다.

이 회사는 지난 2013년 12월 여러

숙취 해소 '디톡스' 링거 뉴욕, 라스베가스에서 인기 바람

가정 방문 링거 서비스와 링거 주사 스파 등 보스톤 진출 추진 중

주에서 의사면허를 받은 아담 나델슨 박사가 비뇨기와 의사인 아버지와 뉴욕시에서 최초로 시작했다. 나델슨 박사에 따르면 이 혼합 링거는 안전하며 아주 심한 숙취의 경우 빠르게 숙취에서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델슨 박사는 모든 환자들은 치료 전에 의사와 상담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의료조치를 가정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그는 밝혔다.

이 회사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의무로 하는 의료자격증 및 포괄적인 면허가 필수적이지만 그래도 10월 말 경에는 개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 공중보건부는 주법의 준수 여부와 면허 의무규정을 잘 지키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처음 이 같은 링거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12년 4월 라스베가스에서다. 마취과 의사인 제이슨 버크는 45푼 투어 버스에서 링거 정맥주사를 놔주는 Hangover Heavend을 개업했다. 서비스당 \$129를 부과했던 버크 박사는 "이것은 아주 독특한 베가스의 경험이며 베가스 스트릿을 드라이브 하면서 링거를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가 인기를 얻으면서 회사 고객들이 많아지자 버크 박사는 회사 패키지를 제공했고 얼마 안 가 라스베가스에서 클리닉을 열고 24시간 \$200의 호텔 클리닉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객들은 카우치에 누워 티비를 보면서 링거를 맞으며 링거가 가져다 주는 마술을 느끼게 된다고

로스 앤젤리스 소재 디톡스 데이스 파인 세다하우스(Cedarhouse) 또한 '샷바'가 부속으로 있어 일반에게 정맥 링거 주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회사 웹사이트에 따르면 세다 하우스

또한 조만간 보스톤에서 개업할 예정이다.

아리조나 스카데일 소재의 드립룸(Drip Room)은 비타민 B12, B5와 B6를 맞는 에너지 드립, 지방연소제와 L-카니틴을 주입해 지방을 분해하고 작은 근육을 만드는 살빼기 드립, 피부를 위한 드립 등이 있다. 가격은 웹사이트에 따르면 회원들은 \$99이며 비 회원들은 \$149이다.

이처럼 링거 주사 서비스가 일부 미국 지역에서는 큰 호응을 얻고 있지

만 의료계의 반응은 시큰둥 하다. NYU의 랭곤 메디컬 센터의 독물전문(toxicologist)인 루이스 넬슨 씨는 "이런 치료가 큰 효과를 낸다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플라시보 효과의 일종일 것이라고 밝혔다.

매스제너럴(MGH)의 내과의 로이 리피 박사도 링거주사가 숙취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충분히 증명할 자료를 아직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리피 박사는 "술을 마실 때 천천히 마시고 물을 충분히 마셔 다음날 아침 탈수증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숙취에 최선의 방법"이라고 예방이 가장 저렴하고 최선의 방어임을 설명했다. hsb@bostonkorea.com



뉴욕에 거주하는 두 남자가 아이비 닥(I.V. DOC) 서비스를 받고 있다

## 한인 교포 감독 영화 '서울 서칭' (무료티켓 이벤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한인 재미교포 2세 벤슨 리(Benson Lee) 감독이 제작한 영화 '서울 서칭(Seoul Searching)'이 보스톤 아시아인 아메리칸 필름 페스티벌(BAAFF)의 오프닝 나잇인 오는 22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브래틀리 소 재 Brattle Theatre에서 상영된다.

이에 한미예술협회(회장 김병국)은 보스톤코리아의 독자들을 위해 무료티켓(5장)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

. 이벤트 참여 방법은 '서울 서칭'에 카메오 출연한 한국 연예인 3명을 적어서, 가장 정확하게 적어 보스톤코리아로 보낸 5명에게 영화 티켓을 증정한다.

'서울 서칭'은 미국, 독일, 멕시코 등에서 태어난 해외한인 자녀를 대상으로 모국의 역사와 문화 체험을 위해 1986년에 한국 정부가 주최한 서울 여름학교에 참여한 10대의 재미교포 소년소녀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서울 서칭'은 영화배우 차인표, 저스틴 전, 제시카 반 등 아시아인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이다. '서울 서칭'은 지난 1월 말 미국 유타주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독립영화제인 선댄스 영화제(Sundance Film Festival) 프리미어 부문에 공식 초청됐다.

보스톤 아시아인 아메리칸 영화제는 프리 커뮤니티 스크리닝(Free Community Screening) 이벤트로 자레드 레버그(Jared Rehberg) 프로듀서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오퍼레이션 베이비 리프트(Operation BabyLift)'를 상영할 예정이다. '오퍼레이션 베이비 리프트'는 오는 10월 토요일 6시 도체스터 베트남 아메리칸 커뮤니티 센터에서 상영된다.

보스톤 아시아인 아메리칸 영화제에서는 '서울 서칭'에 이어 24일 아서 동(Arthur Dong)감독의 'The Killing Fields of Dr. Haing S. Ngor'와 25일 미라 심한(Meera Simhan) 감독의 '미스 인디아 아메리카(Miss India America)'의 상영이 이어진다.

보스톤 아시아인 아메리칸 영화제는

22일부터 25일까지 Paramount Center(Emerson College, Boston)와 Brattle Theatre에서 개최된다.

보스톤 아시아인 아메리칸 영화제 티켓 구매는 BAAFF 웹사이트(baaff.org)에서 가능하며 10월 5일까지 구매할 수 있다.

서울서칭 (Seoul Searching)  
일시: 10월 22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Brattle Theatre  
(40 Brattle St. Harvard Sq., Cambridge, MA 02138)  
jham@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다문화수용**

##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매년에도 New Star Realty의 개나리입니다.  
1997년에 보스톤 지역으로 유학을 와 이 대학을 나온 것(MBA)을 미국과 연결된 BOSTON-CAMBRIDGE 지역과 가장 잘 알고 각 지역마다의 장점,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업중입니다. 항상 새로운 100% 이상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가격에 집을 사시고 매대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3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96

**Newton Office**  
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0  
Tel: (617) 550-4996

**EXCLUSIVE : ALLSTON**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남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근처, 역, 미, 한아주, 사출 실방만, 참나무에 걸쳐서 1-2분 거리  
내년 8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풀스런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EXCLUSIVE : BEDFORD 지역 단독주택**



**For Sale: \$599,000** 3+ Beds, 2 Bath, 2238 sqft (Lot size: 1.3 acre)  
(3 CEDAR LANE, BEDFORD, MA)  
학군 좋은 Bedford 지역 Single House.  
넓은 경관, 양쪽에 위치, 조용하고 Private한 곳입니다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erengn**

# 임기 10년 맞은 미 대법원장 놓고 '성향 논쟁' 시끌

### '원칙과 소신' 판결 여론 속 '우군' 공화당서는 비판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중우 특파원 =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가에서는 존 로버츠(60) 연방 대법원장의 '성향 논쟁'이 한창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지난 29일로 임기 10주년을 맞이했다.

그는 2005년 9월 29일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젊은 법조인을 연방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으로 지명한 것은 그의 보수 성향과 신념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로버츠 대법원장은 취임 당시 나이가 50세로 존 제이 초대 대법원장과 존 마셜 제4대 대법원장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최연소 대법원장이었다.

그는 같은 해 7월 은퇴를 발표한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으로 후임으로 지명됐다. 상원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윌리엄 렌퀴스트 당시 대법원장이 사망하자 대법원장에 오르는 행운을 안았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끄는 연방 대법원에서는 지난 6월 미국 사법사(司法史)에 이정표가 된 판결 2건이 있었다. 이는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안과 동성결혼의 합법화다.

특히 로버츠 대법원장은 1표 차로 명암이 엇갈린 건강보험 개혁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함으로써 양측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반면, 동성결혼 합법화를 놓고 대법원에서 벌인 투표에서는 보수 성향을 뒷받침하듯 반대표를 던졌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 케어와 동성결혼 합법화는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공화당 진영에서는 로버츠 대법원장의 건강보험 개혁안 찬성투표를 놓고 '배신행위'라는 극언까지 나왔다. 그 불똥은 그를

대법관과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까지 튀었다.

하지만, 로버츠 대법원장의 배신이라고 보다 소신이었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그동안 대법원 판결을 보면 로버츠 대법원장의 입장은 보수 쪽에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 2010년 '시티즌스 유나이티드 vs 연방 선거관리위원회' 판결이다.

보수 비영리단체인 시티즌스 유나이티드는 2007년 대선 기간에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불리한 기록물을 방영하려 하자 선관위가 이를 금지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대법원은 당시 5대4로 시티즌스 유나이티드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때에도 로버츠 대법원장의 찬성표가 승패를 갈랐다.

그는 이어 2013년 인종차별이 심한 지역에서 흑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제정된 '투표권법'에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도 찬성표를 던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

이 사건은 앨라배마 주 셸비 카운티가 당시 에릭 홀더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이었다.

대법원은 셸비 카운티가 제기한 투표권법 위헌 소송에서 선거법 개정 시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州) 정부의 선정 기준을 정한 투표권법 4조가 헌법에 어긋

난다고 판시했다.

미국 언론들은 로버츠 대법원장 임기 10년간 대법원은 총기류 소지와 인종·종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수 쪽에, 동성결혼과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서는 진보 쪽에 무게추가 기울어진 형국이라고 전했다.

아닌게아니라 로버츠 대법원장이 재임 10년간 찬성표를 던진 사건 가운데 58%가 보수 성향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념이 개입된 판결에서 찬반이 박빙일 경우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자신의 표가 대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미묘한 균형감'을 보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인연도 화제다. 두 사람은 하버드대 로스쿨 동문으로 로버츠 대법원장이 선배다. 모두 권위 있는 '하버드 리뷰'의 편집장을 지내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성향은 완전히 극과 극이었다. 편모 가정에서 넉넉지 못한 청소년기를 보낸 오바마가 민주당을 선택한 것과 달리 로버츠는 유복한 가정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공화당을 선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이던 2005년 로버츠 대법관의 인준안에 반대했으며, 로버츠 대법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취임선서시 취임선서를 잘못 선택해 백악관에서 다시 취임선서를 하도록 했다.

jongwoo@yna.co.kr



존 로버츠 미 연방 대법원장(좌)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우)

## 샌더스, 대학 후배들에게 "변화 위해 정치 참여하라"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2016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73·무소속·버몬트)이 모교 시카고대학을 방문,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정치 과정에 참여하라"고 당부했다.



29일 시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은 전날 시카고대학 정치연구소가 주최한 대선 후보 초청 시리즈 첫 번째 연설자로 초대돼 학생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샌더스 의원은 본격적인 연설을 시작하기 전 "1964년 바로 이곳(록펠러 채플)에서 졸업식을 했다"며 감회를 밝힌 뒤 "재학 당시 수업 준비를 위한 책 말고는 모든 책을 다 읽었다"라고 말해 학생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샌더스는 이 자리에서 "변화는 결코 위에서부터 아래로 번지는 법이 없다. 항상 아래로부터 일어난다"며 "우리 앞에 놓인 세상이 왜곡돼 있다는 사실을 민중이 자각하고 결단을 내릴 때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중들이 일어서는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치는 유권자들이 그 과정에 참여할 때 비로소 변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만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최대 12주까지 유급 병가 보장, 남녀 임금 격차 해소 등 어젠다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샌더스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정치인들이 선거관에 무제한 자금을 끌어들이 수 있도록 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의지를 가진 사람만 대법관에 임명할 것"이라고 서약했다.

이어 빈민가정 지원 시스템과 은퇴자 및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의회를 비난했다.

한 참석자로부터 "교착상태에 빠진 워싱턴에서 그 계획들을 어떻게 구현해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은 샌더스는 "정치 개혁 없이 대통령 혼자서 미국에 필요한 변화를 완성할 수 없다. 정치 시스템 개조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월가 및 대형은행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 샌더스는 일부 주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앞서고 있다.

chicagorho@yna.co.kr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ancaster, Waltham, Wellesley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파편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피당사함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8tv tbo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안티비드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불법 다운로드 비디오를  
합법적인 안티비드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In Lowell

좋은 치과 좋은 치아

WE MAKE SMILE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 "게이츠 22년연속 미 최고갑부... 트럼프는 121위"

트럼프 순자산 45억 달러 평가... 당초 주장 100억 달러의 반도 안돼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마이크로소프트(MS)의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가 22년 연속 미국 최고 부자의 자리를 지켰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121위에 머물렀다.

29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미국 400대 부자 명단에 따르면 게이츠는 순자산 760억 달러(약 90조 7천400억 원)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순자산 620억 달러를 기록한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이었고, 오라클의 공동 창업자 래리 엘리슨이 475억 달러로 3위에 올랐다.

에너지기업 코크 인더스트리의 공동 소유주인 찰스 코크와 데이비드 코크 형제는 각각 410억 달러로 5, 6위를 기록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은 386억 달러로 8위였다.

올해 상위 10위권에는 정보기술(IT) 창업자 세 명이 새로 진입했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베저스는 추가 상승에 힘입어 470억 달러를 기록, 지난해 15위에서 4위로 뛰어올랐다. 또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403억 달러)가 11위에서 7위로, 구글 창업자 겸 CEO인 래리 페

이지(333억 달러)가 13위에서 10위로 각각 올랐다.

당초 100억 달러(약 11조9천400억 원)의 순자산을 가졌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후보는 절반도 못 미치는 45억 달러(약 5조3천703억 원)를 가진 것으로 평가돼 121위를 기록했다.

포브스는 "80명이 넘는 취재원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순자산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후보는 다음 달 19일 발간 예정인 포브스와 인터뷰에서 "나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라며 "나는 당신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순자산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후보는 "나는 당신들이 가 급적 나를 가난하게 보이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한다"며 "포브스는 파산한 잡지이며 자신들이 무엇을 말하는지조차 모른다"고 비판했다.

트럼프가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하겠다고 밝힌 헤지펀드 투자자인 칼 아이칸은 205억 달러의 순자산으로 22위를 기록했다.

패스트 패션 브랜드 '포에버 21'의 공동창업자인 재미교포 장도원·장진숙 씨 부부는 46억 달러로 119위에 올랐다.

rhd@yna.co.kr



마이크로소프트(MS)의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가 22년 연속 미국 최고 부자의 자리를 지켰다



## 미 달러, 민간 고용지표 호조 힘입어 '강세'

(서울=뉴스1) 김정환 기자 = 미 달러화 가치가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에 힘입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30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전날보다 0.4% 오른 96.27을 기록하고 있다.

달러/유로 환율은 0.63% 하락한 1.1174달러를, 엔/달러 환율은 0.12% 오른 119.85엔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한 것은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연방준

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금리인상 전망에 힘이 실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고용조사업체인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 9월 미국의 민간 신규고용자 수가 20만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19만4000명을 웃돌고, 직전월(8월) 수정치인 18만6000명도 웃도는 수준이다.

ADP 고용지표는 무디스 애널리틱스와 공동 개발한 것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를 통해 미국 노동부가 발표

할 고용지표들의 동향을 미리 파악하곤 한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를 후인 다음 달 2일 발표될 예정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일자리 수를 모두 합한 미국의 이번 달 비농업부문 전체 신규고용자 수가 20만3000명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약 5개월래 최저치였던 지난 달 기록인 17만3000명보다 개선된 것이다.

acenes@news1.kr

## 금값 5분기째 떨어져...1997년 이후 최장기 하락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 = 금값이 올해 3분기에 5분기째 하락하면서 1997년 이후 최장기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금값은 이날 오전 뉴욕에서 온스당 1,113.50달러로, 1.2% 하락했다. 한 때 1,110.80달러로 지난달 16일 이후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다.

금값은 3분기에 약 5% 하락해, 올해 들어 분기 기준 최대폭 주저앉았다.

블룸버그는 금값 약세 지속은 고용 지표 개선 탓이 크다고 분석했다.

ADP 리서치에 의하면 미국 기업의 신규 고용은 9월에 20만 명으로, 블룸버그 전문가 조사 중간치 19만 명을 초과했다.

블룸버그는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지난달 금리를 동결하면서 '고용시장이 더 좋아지면 움직임'이라고 밝혔음을 상기시켰다.

시카고 소재 RJO 피쳐스의 밤하버코른 선임 시장 전략가는 블룸버그에 "연준 움직임 때문에 누구도 금에 롱(매입) 포지션을 취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 때문에 "(금) 시장에서 많은 자금이 빠져"고 말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선물 거래 추이를 근거로 오는 12월의 연준 금리 인상 확률을 41%로 관측했다.

반면, 이달에 오를 확률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

jksun@yna.co.kr



## 미 상원, 잠정예산안 통과...하원 통과 시 첫다운 모면

(서울=뉴스1) 김정환 기자 =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첫다운(일부 정부폐쇄)을 모면하기 위한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AFP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이날 상원은 잠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78표와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

이 잠정예산안은 2016 회계연도(2015년 10월1일~2016년 9월30일) 예산안 처리시한인 오는 30일 공화당의 거부로 다음달 1일부터 첫다운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대비책이다.

공화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낙태 옹호단체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제외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대립 중이다.

공화당이 마련한 잠정예산안은 가족계획연맹에 대한 자금지원 항목을 제외하고 기존 예산을 오는 12월1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족계획연맹은 매년 5억달러(약 5970억원) 이상의 정부자금을 지원받지만, 공화당은 이 단체가 태아의 장기를 불법 매매하고 있다며 자금지원 중단과 처벌을 주

장하고 있다.

잠정예산안이 곧이어 실시될 하원에서도 통과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서명할 경우 연방 정부 일시 업무정지(첫다운) 개시는 약 10주 후로 연기된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첫다운을 일단 모면하게 되면 오바마 대통령과 2016년도 예산안과 그 이후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개시할 방침이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나는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함께 지난주 이미 예산안에 대한 논의의 시작에 대해 의견을 냈다"며 "조만간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이너 의장은 다음달 30일 의장직을 사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가 물러나기 전 국방비 지출 확대를 포함한 공화당 다수의 의견들을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지가 의문이다.

공화당은 국방비 지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국내 프로그램에 대한 이와 유사한 지출 확대를 억누를 예정이다.

acenes@news1.kr

# TASTE OF KOREA

# 코리아나

#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볼텍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상급 볼텍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월요일-목요일 11:30AM-10:30PM  
금요일-목요일 11:30AM-12:00AM  
103 Prospect St, Cambridge, MA 02148



- Driving Information**
1. 103 Prospect St, Cambridge (near 10th St)  
North-South Road 7, South, 103 Prospect St
  2. I-93 & I-95 Interchange (Exit 10B)  
1. Local 4 Drive, Street 7 East
- 103 Prospect St, Cambridge (near 10th St)  
• 103 Prospect St, Cambridge (near 10th St)  
• 103 Prospect St, Cambridge (near 10th St)
- \* 103 Prospect St, Cambridge (near 10th St)  
\* 103 Prospect St, Cambridge (near 10th St)



## 수잔 안 부동산



"TOP PRODUCER"  
#1 Agent Million Sales

Cell: 339.224.1512

안수잔의 '고객 만족 최우선' 서비스



'Top-Producer'의 Know-how로  
고객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집 빠르게 팔고 사고
- 최고가격, 최고 서비스
- 건물 투자 상담



Somerville 5 Family \$ 999,900  
면적 \$ 700,000, 주거 면적 3072 sq. ft. 임대료 1000  
501 콘크리트, Quaker 4-beds, Hard oak floors,  
porcelain granite, stainless appliances, Central Air  
Conditioning and in-unit laundry, complete with 4th fl.



Brookline 2 Family \$ 1,100,000  
Tax \$ 43,490, 주거 면적 2300 sq. ft., 대지 면적 4992 sq. ft.,  
멋진 학교, 잘 관리된 콘크리트, Green law 0 콘크리트,  
대형 최상의 위치, 풀 콘크리트, 5 year Roof  
임대료도 heating system, 2차



Newton 2 Family \$ 749,900  
2가구 지붕이 있음 ● 주차 약 95,000,  
대지 면적 8995 sq. ft., 난방 2500sq



Newton \$ 1,300,000  
2가구집주, 면적 \$ 1,500,000, 대지 면적 6200 sq. ft.,  
임대료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  
편모하기 좋은 위치(T 콘크리트), 보스톤 대학교



Newton \$ 1,999,000  
완벽한 집, 최고 학교, 주거 면적 5800 sq. ft.,  
대지 면적 10000 sq. ft., 2차, 화장실 5개  
Granite St,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High school



Newton \$ 999,000  
2017년 새 집, 2차 화장실 3개, 멋진 학교  
보기도 좋은 가격, 주거 면적 3800 sq. ft.,  
대지 면적 7000 sq. ft.,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Reading \$ 385,000  
2차 화장실, 멋진 학교, 편리한 교통,  
편모비보다 저렴한 가격, 2차, 화장실 2개,  
주거 면적 1300 sq. ft., 30'간격의 한 층 높이  
95' 오프로드 콘크리트, Garage Parking



Burlington \$ 599,000  
2017년 새 집, 2차, 화장실 2.5개,  
주거 면적 2000 sq. ft., 대지 면적 4725 sq. ft.,  
Hardwood 콘크리트.



Boston Fenway \$ 384,000  
2차, 화장실 2개, 주거 면적 5700 sq. ft.,  
콘크리트 2 콘크리트 (Hard, Hot water 포함)  
보스톤 대학교의 대학가 T Station, 공원, 박물관.



Winchester \$ 1,290,000  
2017년 새 집 최고의 학교 2차 화장실 4.5개  
주거 면적 4000 sq. ft., 대지 면적 17500 sq. ft.,  
마루 바닥, 최고의 학교, 편리한 교통

"TOP 에이전트가 TOP으로 모입니다"

centre realty group  
1280 Centre St, Newton Centre, MA  
460 Main St, Watertown, MA

# 청와대, 김무성 반발에도 '안심번호' 반대... 정면 대결

청,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5대 불가론 들며 조목조목 반대

김 '여당 대표 모욕' 발언 등에 "논평 않겠다"며 언급 자제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청와대는 1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당 내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추가 대응은 자제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청와대에서 얘기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입장이 유효하냐는 물음에 "그렇다"면서 "거기에 대해선 달리 부연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는 새누리당 김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달 28일 내선 총선 공천에서 '후대전화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도입에 잠정합의 한 데 대해 30일 '고위 관계자'를 통해 △역(逆)선택과 민심 왜곡 △조직선거 △세금 낭비 △전화조사와 현장투표 괴리 △졸속 합의 등의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 대표는 '안

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청와대의 5가지 비판 논거에 대해 "하나만 맞다 틀렸다"면서 "청와대 관계자가 여당 대표를 모욕하면 되겠다"고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민 대변인은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한 질문엔 "(언급할 게) 없다", "따로 논평하지 않겠다"면서 답변을 피했다.

비록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서이긴 하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제시된 만큼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민 대변인은 자신이 전날 오전 8시20분쯤 총선 공천 문제에 대해 "정기권에서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불과 3시간여 만에 다른 고위 관계자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한 데 대해선 "거기(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지적하면 좋겠다고 (입장이) 바뀌었으니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즉, 전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관련 발언이 해당 인사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내부 논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인 것이다.

다만 민 대변인은 이 같은 청와대 입장이 나오기까지의 구체적인 과정 등에 대해선 "추가로 할 말이 없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민 대변인은 '청와대가 실명으로 입장을 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물음에

도 "거기에 대해선 특별히 답변할 게 없다"고 말했고, 새누리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공천 제도를 논의할 당내 특별 기구를 신설하는 논의를 이어간다'는 데만 합의한 데 대해서도 "(답변할) 준비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민 대변인은 또 '당에 공천 관련 기구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논의되는 사

안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입장을 낼 거냐는 물음엔 "(질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될 거란 가정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쉽게 답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주재와 국군의 날 기념식 참석 등 예정돼 있던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ys4174@news1.kr

##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3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Le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iv. 5) Graduate (iv. 6)
-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 Duney College
- Massachusetts Community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 (617) 3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OCT. 2ND - OCT. 8TH, 2015**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all in **LOVE**  
 with the freshest  
**Fall Fruits**  
 The best of the season's freshest, sweetest, most delicious fruit.  
 잘익어 달디단 허마트 가을 제철과일이 왔어요!

日本食の **まつり**  
 2015 Japanese Food Festival  
**일본 대표상품 모음전**  
 Come and enjoy all the festivities at Hmart's 2015 Japanese Food Festival, where the best of Korea and Japan come together as one.  
**OCT. 9TH - OCT. 11TH, 2015**  
 Only at Hmart Burlington Store  
**무료 사은품 증정!**  
 행사 상품 구입시, 구매 금액에 따라 다양한 무료 사은품을 드립니다.

**NEW CROP** FUJI APPLE **햇 후지 사과** **\$1.79** lb.  
**FRI/SAT/SUN ONLY 2/3/4 ONLY** 단감 바스 **FUYU PERSIMMON** **\$19.99** box  
**NEW CROP** KOIMO SWEET POTATO **햇 코이모 고구마** **\$1.49** lb.  
 GINGER **생강** **\$1.99** lb.  
 All Flavors/1.5L **HAIOREUM ALOE VERA JUICE** **\$1.99** 해오름 • 룬에 베라 주스

**NEW INGREDIENTS AND NEW RECIPES!**  
**JINGA PANCAKE CELEBRATION**  
 새로운 조리법과 다양한 종류! **진가 전**

I Love Tofu 아이 러브 두부 All Varieties/14oz. <b>FRI/SAT/SUN ONLY 2/3/4 ONLY</b> <b>\$0.88</b>	양념 별집 등심 스테이크 <b>MARINATED TENDERIZED Sliced Beef Rib Eye Steak</b> lb. <b>\$6.99</b>	<b>FROZEN</b> Sliced Pork CT Butt for Bulgogi 불고기용 냉동 돼지 목살 lb. <b>\$5.99</b>	<b>FRESH</b> Beef Top Blade Steak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b>\$7.99</b>	<b>FRESH</b> Pork CT Butt Chunk 수육용 생돼지목살 lb. <b>\$4.99</b>	<b>FRESH</b> 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바베큐용 생삼겹살 lb. <b>\$7.99</b>
SUHYUP Yellowtail 수협 냉동 방어 lb. <b>\$1.99</b>	Salted Beltfish 자반 갈치 <b>FROZEN</b> <b>FRI/SAT/SUN ONLY 2/3/4 ONLY</b> lb. <b>\$3.99</b>	TONGTONGBAY Oyster 통통배 청정생굴 8oz./pkg. <b>FROZEN</b> <b>\$5.99</b> pkg./for	TONGTONGBAY Dried Anchovy 통통배 지리 멸치 1 lb./pkg. <b>FROZEN</b> <b>\$16.99</b>	Cod Fillet 대구 전갈 lb. <b>FRI/SAT/SUN ONLY 2/3/4 ONLY</b> <b>\$5.99</b>	NONGSHIM Shin Ramyun 농심 신라면 박스 4.2oz. x 16ea./box <b>\$9.99</b>
HAIOREUM Canned Mackerel Pike 해오름 꽂치 통조림 14.1oz. <b>2\$3</b> ea./for	KADOYA Pure Sesame Oil 가도야 참기름 56fl.oz. <b>\$14.99</b>	CHORIPDONG Dried Wild Pollack Sliced 초립동이 황태채 8oz. <b>\$7.99</b>	AHN DONG Salted Mackerel 안동 간고등어 14.2oz. <b>\$4.99</b>	HOUSE Vermont Curry 하우스 버몬트 카레 All Varieties/8.8oz. <b>\$2.99</b>	HAITAI Honey Tong Tong 해태 허니 통통 2.29oz. <b>2\$5</b> ea./for
HAITAI Matdongsan Peanuts Crunch Snack 해태 맛동산 11.46oz. <b>\$2.99</b>	BONNE MAMAN Fruit Preserves 본 마만 과일 잼 All Varieties/13oz. <b>PRODUCT OF FRANCE!</b> <b>\$2.99</b>	JACK LINK'S Beef Jerky Giant Pack 잼 링크스 육포 Original/14oz. <b>\$9.99</b>	YOBO HOME Electric Food Dehydrator 여보홈 음식건조기 White/ea. <b>\$29.99</b>	YOBO HOME Shabu Shabu Hot Pot 여보홈 샤브샤브 핫팟 Single/30cm/ea. <b>\$9.99</b>	ZOJIRUSHI Micom Elec. Rice Cooker 조지루시 마이콤 전기 밥솥 NS-LAC05XA/3cups - ea. <b>\$119.99</b>

### 제2의 유승민 사태인가

보스톤코리아 인사이트 :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는 공당을 정당화하는데 있다. 여전히 1인 지배체제의 틀 안에서 국민참여 경선의 모양새만 갖추고 말았다. 책임 있는 민주당, 국민정당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받느냐, 아니면 총재 1인을 위한 정당으로 남느냐 하는 기로에서 국민적 여망을 외면하는 불행한 선택을 하고 말았다. 2002년 박근혜 총재가 제왕적 총재였던 이회창 총재를 비판하던 말이다. 현재의 입장만 바뀌었지 상황과 겹치는 게 많다.

김무성의 마약 사위 사건에 이어 문재인 대표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합의를 두고 청와대에서는 이례적으로 5대 항목을 제시하며 불가론을 펼쳤다. 친박들도 연일 맹 공세를 퍼붓는다. 한마디로 청와대(대통령)에 공천권 지분을 달라는 얘기다. 그동안 여러 번 고개를 숙였던 김무성 대표도 이번에는 '오늘까지만 참겠다'며 고개를 쳐들었다. 이것은 불과 얼마전 있었던 유승민 찍어내기 장면과 오버랩된다.

# 여, 공천룰 파열음 확산...대안 놓고 제2라운드

친박-비박 첨예 대치...김무성, 일정 취소하고 반격 태세  
"청 비판은 여당 대표 무시" vs "안심번호, 여론조사 인기투표"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공천 방식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갈등이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

여권의 양대 계파인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최대 변수인 '공천 룰'을 놓고 시간이 갈수록 날카롭게 대치하는 형국이다.

특히 양대 계파는 새누리당이 당론이었던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사실상 폐기하고 '제3의 대안'을 찾기로 한 다음날인 1일 자파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룰을 쟁취하기 위한 '생존 경쟁'에 속도를 냈다.

김무성 대표는 추석 연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잠정 합의를 통해 오픈 프라이머리의 '김무성표 대체재'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들고 나왔지만, 청와대까지 가세한 여권 주류인 친박계의 강력한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김 대표는 새로 구성되는 특별논의 기구에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을 중심

으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친박계가 정면으로 거부하고 모든 방식을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공천 룰을 둘러싼 논란이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찬반을 다투던 제1라운드에서, 이제는 그 대안을 놓고 진검 승부를 가리는 제2라운드로 넘어갔다는 의미다.

안심번호 공천제와 관련해 전날 청와대로부터 일격을 당했던 김 대표의 행보가 우선 심상치 않다.

김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군의 날 기념식 일정을 포함,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의원회관에 머물렀고, 기자들과 만나서는 야당 대표와의 협상 사실을 미리 청와대에 알렸다고 밝히며 반격에 나섰다.

전날 친박계와 청와대가 '대표의 독단적 행보', "절차상 문제" 등을 지적하며 자신을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김 대표의 측근들도 지원 사격을 계속했다.

김 대표 체제에서 제1사무부총장을 지낸 강석호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민심 왜곡, 조직선거, 세금 공천이 우려된다고 하고,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와 협의해 나온 안을 직격으로 이렇게 (비판)한다면 여당 대표를 상당히 무시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변인을 했던 권은희 의원은 PBC 라디오에서 "(청와대가) 의견 정도는 제시해줄 수 있지만,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이 조금 더 상식적 수준에서 돼야 하지 않느냐"면서 "우리가 가진 체계를 가동해 의사 조율을 할 방법이 있는데도 언론 등을 통해 이렇게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박계의 공세도 점점 거세지는 분위기다.

친박계 만행적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김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심번호는 국민공천제가 아니라 안심번호에 의한 여론조사"라며 "(김 대표는) 안심번호로 국민공천제를 한다는 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문종 의원이 KBS 라디오에 출연해 "안심번호 제도는 완전히 인기투표이고, 여론조사에 불과한 것"이라며 "지금 안심번호 제도로 공천하면 새누리당은 모든 국회의원도 당협위원장이 거의 다 공천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야당의 전략공천 방침 등을 거론, "이런 데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다"면서 "그런 전략 전술 없이 인기투표로 후보를 결정한다고 봤을

경우 저쪽은 신식무기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는 구식 파발총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흠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여러가지 논의를 마치고 야당과 합의해야 하는데 (김 대표) 본인 독선적으로 합의를 했다"면서 "야당에서 전략공천을 20% 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도 지금 전략공천을 한다 안 한다,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leslie@yna.co.kr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일 국회 의원회관 방 앞에서 여야 대표의 부산회동에 대해 "청와대에 사전통보했다"고 취재진에 말하고 있다

# 야, 혁신위 발 '핵폭탄' 후폭풍...파장 어디까지

안심번호 문제제기한 친박...국민공천 취지 살리자는 비박  
김무성 "청와대 관계자가 당 대표 모욕...오늘까지만 참겠다"

(서울=뉴스1) 서상현, 박상휘, 김영신, 이정우 기자 = 새누리당은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 국민공천제를 포함한 공천 룰에 대한 모든 안(案)을 당내 특별기구를 구성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한 점에서 본다면 김 대표가 승리하지 못한 의총이었다.

이날 의총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두고 친박계가 연일 반박 의견을 내고 이날 오전에는 청와대까지 나서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김무성 대표측과 친박간의 대결은 밀도가 높았다.

양측은 의총에서 양보 없이 찬반 입장을 내세우면서 팽팽한 대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대표는 의총 발언을 통해 안심번호 도입 문제를 지적한 청와대 관계자의 멘트를 조목조목 반박했고 "청와대 관계자가 당 대표를 모욕하는 것

은 오늘까지만 참겠다"고 말했다.

공천룰을 둘러싼 친박과 비박의 갈등이 언제든 임계점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의총 직후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국민공천제 취지 하에 새로운 공천제도를 만드는 특별기구를 만들기로 했다"며 "제가 있는 한 전략공천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국민공천제에 대한 결론 없이 당내 기구를 통해 공천방식을 논의하겠다는 결론인 셈이다.

이날 의총은 KT 출신의 IT전문가인 권은희 의원이 안심번호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돼 크게 두 줄기의 흐름을 보였다.

친박계는 안심번호의 문제점을 거론했고, 비박계는 국민공천의 취지를 살리는 공천제 도입이 필요하며 안심번호를 포함한 여러 논의가 발전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친박계 김태흠 의원은 "여론조사를

가지고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경선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 정당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며 원래 오픈프라이머리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반대 의사를 밝혔

다. 청와대 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은 "휴대전화 주소지가 실제 거주하는 곳이 아닐 수 있어 유권자가 아닌 사람의 안심번호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윤상현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한 정당의 헌법기관 후보자를 여론조사 방식으로 법제화하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는가. 당 공천제도 는 당헌 규정으로 당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내부 토론도 하기 전에 바깥에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합의한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친박계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직후 "오픈프라이머리는 못하게 됐으니 더는 끌고가면 안된다, 특별기구를 만들어 공천룰을 정리하자는 두 사항을 당 대표가 모두 받아들였다. 최고위에서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박계를 중심으로는 안심번호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향후 공천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개됐다.

김영우 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친박계가 당내 특별기구를 만들어 안심번호 도입 등에 대해 원점재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안심번호를 좀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은희 의원이 여론조사의 역선택 문제는 안심번호를 도입할 경우엔 조속지혈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정할 때 새로운 공천문화 실현을 위해 바꾼다고 했는데 지금 정당정치를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발언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재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친박계는) 기본적으로 안심번호를 이해하지 않으려는 거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 내용은 다 알지만 그걸 안 받아들일지...라"며 "국민공천제는 반대할 게 없다"고 말했다.

김재경 의원은 "상향식 공천의 정신

을 살리고 전략공천을 배제할 수 있다면 안심번호도 가능성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정두언 의원은 의총에 앞서 "이번 공천제 논란은 우리 국회가 권력의 눈치만 보는 후진적 거수기 국회로 계속 남느냐, 아니면 국민의 눈치를 보는 선진적 민주국회로 바뀌느냐 그 갈림길에 있는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수의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한 뒤 김 대표는 "국민공천제는 양당이 동시에 도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그래서 방법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취지는 바뀔 수 없다"면서 "당의 공식 특별기구를 만들어 제3의 길을 찾자고 말씀드린다"고 마무리했다.

당내 특별기구를 통해 안심번호 도입 등 공천룰을 망라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추후 논의과정에서도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소리는 여전하다.

김 대표 측근인 김성태 의원은 "청와대는 불필요한 당청 갈등을 유발하고 야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를 겨냥했다.

dearpure@news1.kr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갑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갑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 책임 진료

닥터스 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완부가 손상되거나 척추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록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록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63

# 문, 김 덕에 동력 얻었지만...공천 문제로 통합행보 '힘로'

비주류, 권역별 비례대표제 · 농어촌 지역구 합의불발 비판  
선출직공직자평가위 · 인적혁신안 두고도 논란 조짐  
신당파 · 국민공감 출범 등 당의 상황 복잡...문, 방중 보류

(서울=뉴스1) 조소영, 박웅진, 서미선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덕에 통합행보를 이룰 동력을 얻었지만, 비주류를 중심으로 공천 방식 문제제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통합과제 이행이 '힘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대표가 지난 28일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합의한 직후 새누리당내 친박(親朴근혜)과 비박간 '공천 주도권' 갈등은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상대적으로 문 대표는 김 대표로부터 '협상의 승기'를 거머쥔 모습을 갖추면서 추석 이후 통합행보를 하는데 힘을 얻은 모습이다.

하지만 속도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새정치연합에서도 공천 문제를 두고 분열 조짐이 보이면서 문 대표의 통합행보가 간단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비주류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농어촌 지역구 배려 문제에서 합의가 불발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신당 추진 인사들은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비주류를 대표하는 이종걸 원내대

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와 라디오 방송에 나와 "여야 대표 협상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방점을 뒀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논의의 시작을 잘못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안심번호는 안심 못하는 '불안심번호'라며 "국민공천제는 찬성하지만 안심번호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안심번호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는 얘기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가까운 송호창 의원 또한 라디오에 나와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주홍 의원은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유재선입니다'에서 "문 대표는 비례대표를 절대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는 호남을 포함한 농어촌 선거구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전남북 의원들이 10월 2일 문 대표에 반대의 뜻을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류계인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문 대표의 손을 들었다.

그는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 프라이머리를 같이 얘기해보자고 두 달 전에 얘기한 문 대표가 대승적으로 가자고 (오픈프라이머리를) 수용한 형국이 된 것"이라며 "문 대표의 정치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공천 심사를 위해 꾸려질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을 놓고도 파열음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직에 내정됐지만, 비주류들은 조 교수가 2012년 한명숙 대표 체제의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전력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당 혁신위(위원장 김상곤)가 지난 23일 문 대표에게 부산 지역, 특히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인 영도 출마를 권유하고, 전직 대표 및 중진 인사들에게 야권 열세지역을 나서라고 한 인적혁신안도 논란거리다.

문 대표가 부산에 출마를 해야 하지만 지역은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 영도가 아닌 이길 수 있는 지역을 나서야 한다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송호창 의원은 "서울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정치 1번지(종로)로 가서 강력한 여당 후보와 경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표는 지난 26일 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산시당 지역위원장들과 오찬을 갖고 부산 출마 의지를 내보였다. 한 참석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문 대표가 부산위원장이 제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역할을 하겠다. 부산에서 어느 지역에 나가느냐는 문제는 여러분이 의견을 모아주면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공천 경쟁의 연장선상인 '혁신 경쟁'도 지속된다. 비주류 의원도 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은 국정감사 뒤 '총선 승리의 조건'을 주제로 혁신토론회를 계획 중이다. 안 전 대표는 내달 중 낚은 진보청산과 새로운 인재영입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당의 상황도 마뜩찮다.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박·천 의원 등 이른바 신

당파는 문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그룹인 동교동계는 이들을 중심으로 한 원탁회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원외 민주당의 '새로운 시작 위원회'(의장 김민석)도 내달 4일 간담회를 열어 야권 재편 구상을 발표한다.

아울러 이날(30일)은 '탈노'(脫老무현)를 표방하는 '포럼 국민공감'(상임대표 김근식 경남대 교수·공동대표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발족식 및 정책 세미나도 열렸다.

문 대표는 일련의 상황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당초 내달 10일부터 16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비류 결정을 내렸다. cho11757@news1.kr

## 김·문 뜻 모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유원자 신분 몰라 '동원선거' 차단  
상대당 약한 후보 선택하는 '역선택' 문제 완화

(서울=뉴스1) 박주연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한가위 부산회동을 갖고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룬 가운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이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 등 공직 후보를 선출할 때 일반 국민이 정당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참여하도록 한 제도다.

당내의 영향력과 관계없이 국민들에게 명망있는 인물들이 정치권으로 영입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당정치가 약해지고, 역선택이나 동원선거가 가능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국민공천제의 단점을 차단하기 위해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것이다.

안심번호란 실제 전화번호가 아니라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가상번호다. 여론조사의 조작·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유출도 막을 수 있다.

안심번호가 도입되면 유권자마다

부여된 일회용 가상번호가 정당에 제공되며, 정당은 이 번호를 활용해 선거인단 모집, 여론조사 등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시행하되, 일부 정당만 국민공천제를 할 경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양 대표가 의견접근을 이룬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올해 들어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돼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안심번호를 이용해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치르는 방안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역시 지난 6월 당내 경선 등 여론조사를 위해 '안심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연합에서 최근 당무위를 통과한 혁신안 역시 안심번호 도입을 전제로 100% 국민공천제를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pjy@news1.com

## "분열 말라"vs"새 판 짜라", 호남 정치권 민심 해석 '극과 극'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야권내 신당 창당의 발원지인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이 지역민들의 추석민심을 두고서도 전혀 다른 얘기를 내놓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분열하지 말라'에 방점을 찍는 반면 신당 창당 세력은 '새 판을 짜라'는 것이 호남 민심이라고 엇갈린 해석을 하며 우호적 여론형성을 선점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은 당에 대한 시도민들의 질책을 인정하면서도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야권이 통합하라는 것이 지역 민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기정 의원은 30일 천정배·박주선 의원,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의 신당 창당 움직임을 '인생의 2~3모작'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추석 광주민심을 전하며 신당 창당을 선언한 천·박 의원과 박 전 지사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강 의원은 "그분들을 포함한 신당을 하겠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진 정치인이라기보다 흘러간 인생의 2모작, 3모작을 해나가겠다는 사

람들의 정치인생이라고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민심에 대해서 "당 내부분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다"라며 "다수 의견은 분열하지 말고 중심을 잡고 혁신하라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신당 창당과 탈당이 내년(20대 총선) 공천 때문이라고 유권자들은 그렇게 다 진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승용 최고위원(전남 여수)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신당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신당으로 나가라'고 하는 분들은 일부였고, 대부분 사람들은 당을 살리는 데 노력하라는 말씀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당 지도부가 당을 화합적으로 이끌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과 불만이 엄청났지만, 당장 신당을 해야 한다는 말씀들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한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한결같이 지역민심은 이미 새정치연합을 떠났다고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추석 민심에 대해 "광주시민들 옆에 아홉 분은 정권교체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신

당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천 의원은 "광주시민들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에게 92%라는 압도적인 몰표를 주었는데 문 후보 진영은 패권적인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골몰해왔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야당이나 문재인 대표에게 미래가 없다고 보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민심이 지난 4·29 보궐선거 때 저에 대한 지지로 표출됐고 지금 광주시민들께서는 이제 개혁적인 전국정당을 새로 만들어서 광주정치부터 확 바뀌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탈당 1호' 의원인 박주선 의원도 "(지역민들이) 전부 박수를 치며 (신당 창당) 결정할 거 같았다. 앞으로 새정치연합 의원이와도 안쪽겠다. 새정치연합과 우리의 인연은 다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연휴 기간 중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그룹인 동교동계 인사들도 만났다는 박 의원은 연휴 직후 신당 창당 세력들을 한데 모으는 원탁회의를 통해 야권 재편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being@news1.kr



#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 (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 Icon Dental

##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클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여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ov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종현**  
교정 전문의

#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오  
(프리스트웨이 소라 화장품 내 위치)

탈라, 코팅지 펠, 네일 아트, 각질 제거, 푸피 마사지 등 다양한 로러로인료

# SORA

소라 화장품  
SHISEIDO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푸른빛, 피로회복, 탄력, 밝은 오묘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피부의 탄력을 지켜주는 효과로 인기가 높은 제품

A GIFT FOR YOU



최대용 시세이도 화장품  
전문점/이탈리아 도매  
**홍은희**

# 검, '혼합형 DNA 주사기' 대검에 의뢰...계속 수사중

유명병원 이사장 아들 관련 "기소한 시기 다르다...범행 당시 동종전과 없어"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검찰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 이모(38)씨의 자택에서 발견한 주사기 17개 중 본인과 제3자의 유전자정보(DNA)가 검출된 주사기에 대해 계속 수사중이라고 1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압수된 17개의 주사기와 관련해 투약 일시와 장소 등이 확인된 주사기는 이씨를 기소할 때 공소장에 포함시켰다"며 "나머지 혼합형 DNA가 나온 주사기에 대해서는 현재 진정서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에서는 지난해 11월 김 대표의 사위 이모(38)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발견한 17개의 주사기 가운데 본인의 DNA정보가 검출된 주사기에 대해 검찰이 범죄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개수를 특정해서 말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일부에서 본인 DNA와 혼합 DNA가 검출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주사기 중 이씨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확인이 안 되는 주사기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그 내용을 포함했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의 차녀 김모(31)씨는 혼합형 DNA가 검출된 주사기와 관련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혼 전 남편과 함께 마약을 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지난 17일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검찰은 같은달 24일 출석한 김씨를 상대로 DNA와 모발을 채취해 대검찰청에 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마약투약 여부를 밝혀내는 DNA검사는 7일, 모발 검사에는 15일



검찰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 이모(38)씨의 자택에서 발견한 주사기 17개 중 본인과 제3자의 유전자정보(DNA)가 검출된 주사기에 대해 계속 수사중이라고 1일 밝혔다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빠르면 오는 9 일쯤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서울 유명병원 이사장의 아들 노모씨가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모발 탈색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약식기소한 것에 대해 "범행 당시 전과와 판결 확정 전 범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식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약식 기소한 사건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범행으로 당시 동종 전과가 없었다"며 "올해 1월 기소할 때 이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식기소했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ickim@news1.kr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

## 여, 역사교과서개선특위구성...'국정화 시동'

위원장에 김을동 최고위원 조원진 "교육부, 야·전교조 눈치 보지 말라"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새누리당은 1일 한국사 교과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당 내에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김을동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조만간 당 지도부와 함께 간사 및 위원 구성,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 왜곡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지금 역사왜곡문제와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

했다. 한편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더이상 눈치보는 교육부가 대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여당으로서 정부 측에 묻고 싶다"며 "교육부 장관은 야당과 전교조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교과서를 국민을 통합하는 교과서로 만드는 작업에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침이 무엇인지, 국정교과서를 한다는 것인지 검인증 교과서를 줄인다는 것인지, 정부의 방침을 알 수가 없다"며 "교육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humane@yna.co.kr



교직원노조 등 제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맞서는 투쟁을 선포했다

## [국감브리핑] 해외도피 절반 이상이 횡령 등 경제사범

이한성 의원 "서울서부지검, 구속영장기각률 전국 지검 중 가장 높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주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횡령, 배임 등 경제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각 지검 관내에서 출국을 이유로 기소중지돼 있는 해외도피사범은 총 5503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횡령과 배임, 사기, 부정수표, 조세 등 경제사범이 3148명으로 전체 해외도피사범의 57.2%를 차지했다.

해외도피사범은 2010년 265명, 2011년 347명, 2012년 391명, 2013년 465명, 2014년 588명으로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종로구 등 10개구 사건을 수사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해외도피사범이 제일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이 지금까지 검거하지 못한 해외도피자수는 1425명으로 전국 지검에서 가장 높은 비중(25.6%)을 차지했다. 수원지검이 616명(11.2%), 서울북부지검이 458명(8.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관내에선 2010년

73명에서 2014년 124명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는 48명의 해외도피자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해외도피사범 증가는 사법정의 실현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사법당국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며 "범죄인인도청구, 인터폴 수배 등 도피국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불구속재판을 악용해 재판 도중 해외로 도망가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속영장기각률은 서울서부지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3

만3328건 중 7942건이 기각돼 구속영장기각률은 23.8%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전국 지검별 구속영장기각률은 서울서부지검이 27.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제주지검(27.5%), 전주지검(27.1%), 광주지검(27.0%), 부산지검(25.5%)이 뒤를 이었다.


서울서부지검의 구속영장기각률은 2011년 29.1%, 2012년 26.6%, 2013년 27.2%, 2014년 26.8%로 점차 낮아지다가 올해 들어 31.6%로 늘었다.

이 의원은 "무리한 구속영장청구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애써 확보한 범죄 혐의자가 풀려나 활개를 치고 다니지 않도록 구속영장청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




# 서울설렁탕

##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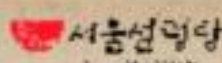






가까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미진,  
특별, 보양, 특출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oul  
서울 or Udon 111  
158 Cambridge St., Boston  
617.875.8888  
SeoulFoodBaker\_bar

Salon Sabrina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퍼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남자컷 25불/여자컷 30불/짜마 70불 부터  
디자깅 130불 부터/개머린 헤어 220불 부터 시작합니다.

광복 연구경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은 오븐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 Hammond Residential

Real Estate

*The Word Is Out...*

**No One Markets  
Like Hammond**

집을 사고 팔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어렵게 생각마시고  
지금 연락주세요!

**Kalin Bae (배경은)**  
617-981-1542  
kbae@HammondRE.com

**Uni Joo (주윤희)**  
508-641-8924  
ujoo@HammondRE.com

40 Grove Street, Wellesley 781.235.5115 • 506 Boston Post Road, Weston 781.893.4466

www.HammondRE.com • www.HammondMagazines.com • www.HammondVideos.com

##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창립 10주년 기념

# BEST OF KOREAN RESTAURANT 2015

보스톤  
보스

보스톤코리아가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실시하고 있는 보스톤 최고 한식당 응모에 참가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절찬리에 진행중인 응모에는 400여명의 독자들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중간 집계결과, 약 4-5개의 한식당이 1위를 두고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정의 변별력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심끝에 보스톤코리아는 3주간 응모기간을 연장키로 했습니다. 응모자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구합니다. 이와 더불어 상품도 대폭 늘렸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응모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보스톤 한식당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푸짐한 상품

\*  
**1등상 1명**  
한국 왕복 비행기표



\*  
**2등상 3명**  
애플워치 | 쿠쿠밥솥  
Tbo 1년 시청권



\*  
**3등상 10명**  
최고로 선정된  
음식점 상품권  
각 1매(25불)

후원: KFood with  
**POP**  
GET YOUR SOUL SOME  
Sudat  
**AUGUSTIN**  
100 YEARS

KFood with  
수불  
한식당

보스톤 한인회  
뉴햄프셔 한인회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국

# 보스톤 최고의 한식집을 선정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독자들이 선정한 최고의 한식 식당

## 투표 마감 연장

**10월 9일 응모 마감**  
(9일자 우편소인까지 유효)

### 한식당 명단 (총 45업소)

- |                 |                  |
|-----------------|------------------|
| 가든하우스(로렌스)      | 산수갑산(벌링톤)        |
| 가주순두부(울스톤)      | 서울설령탕(울스톤)       |
| 가주순두부(케임브리지)    | 서울 레스토랑(보스톤)     |
| 가유가(울스톤)        | 수라상주문음식(엔도버)     |
| 뉴장수갈비(벌링톤)      | 조조순두부(케임브리지)     |
| 다모여(보스톤)        | 아리수 레스토랑(레언스터)   |
| 다빈(렉싱턴)         | 아수(브루클라인)        |
| 다오라스시(브라운)      | 영차우루(벌링톤)        |
| 리틀부산(메이나드)      | 오퍼스시(울스톤)        |
| 매주(서버빌)         | 우리(알링톤)          |
| 명동일번지(울스톤)      | 우전(벌링톤)          |
| 미나토 스시          | 우정식당(에이어)        |
| 미소노(브루클라인)      | 웨스트보로한국식당        |
| 미스터 스시(알링톤)     | 이가그릴(로렌스)        |
| 미스터 스시(브루클라인)   | 제이피시푸드카페(보스톤)    |
| 본촌(울스톤)         | 청기와 레스토랑(메드포드)   |
| 본촌(케임브리지)       | 코리아나 레스토랑(케임브리지) |
| 북경반점(울스톤)       | 코리안그릴(퀸지)        |
| 북경반점(서버빌)       | 하나스시(케임브리지)      |
| 비빔(울스톤)         | 한국가든(울스톤)        |
| 사무라이(보스톤)       | 한마루(울스톤)         |
| 사부로(뉴튼)         | 젠320(브루클라인)      |
| 사부로스시바베큐(웨스트보로) |                  |

혹 빠진 곳이 있으시면 저희 보스톤코리아(817-254-4854)로 연락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식당 명단 중 2개를 골라 공모 용지에 적어서 보내주시시오. 응모는 10월 9일(9일자 우편소인)까지 마감합니다. 응모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해 한국왕복 비행기표를 드립니다. 또한 2등 당첨자 각1명에게는 애플워치 및 쿠푸밤술을 드리며 3등 당첨자에게는 최고로 선정된 음식점 상품권 1매(25불)를 10명에게 드립니다. 독자들의 투표로 선정된 한식당에는 보스톤코리아 독자 선정 최고의 한식당 증명서를 증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투표는 1인 1투표를 기준으로 하며 중복투표는 불가합니다.

#### 베스트 한식당 선정 및 경품 신청서

선정 한식당 1:  
선정 한식당 2:

#### 응모자 정보 기입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명단당 총 2개를 골라 선정 용지에 적어서 아래에 주소 보내주시기요.  
보스톤코리아: 18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응모 투표를 불가하며, 응모는 9월 10일(10일자) 우편소인까지 마감됩니다.

민중 협의회  민주 평통 보스톤지역 협의회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재미 학교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 협의회

 보스톤 재향 군인회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s Korean Presbyterian Church)

하느님이 대하여,  
 권리가 대하여,  
 삶이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가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양푸안 다블뤼 한인성당은  
 새침교자를 위한 교리반이  
 개설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파자수배**

**주일파사:**  
 10:00 am (영어)  
 11:30 am, 4:30 pm (한국어)

**평일파사:**  
 화요일 10:30 am (한국어)  
 목요일 7:30 pm (한국어)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6-2711, 617-244-9655  
 office.kecb@gmail.com  
 www.standrewsfuye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일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7 CLEMA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hird Common Church)

Grace Bible: 수요일 저녁 7:30 | 주일예배: 오후 10:00 | 금오 기도회: 저녁 7:10

주일예배: 오후 10:00 | 금오 기도회: 저녁 7:10

담임목사: 우시창  
 교회: (781) 713-0571 | 팩스: (781) 643-0407  
 http://bostongracechurch.org

**가나안 부동산**  
 손독한 (Broker/Member of RE/MAX)

www.ganainrealty.com

부동산 투자 / 아파트 렌트  
 주택 매매 / 비즈니스 매매

161 Harvard Ave, Suite 2, Allston MA 02134  
 617.290.0623 | son2323@gmail.com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Boston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권종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Ph.D.  
 New York Univ. MAJ.  
 안양대학교 대학원  
 한겨레 대학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3시
평도인 공부	오후 4시
목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회 예배	각 구회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ynn, MA 01904 Tel: (978) 985-0275, (978) 949-3404  
 www.boston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69.5809

**골프 레슨**

**USGTF** 최성조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

Master Golf Professional  
 Certified Course Examiner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보스톤 한인 유일의  
 공인 코스 심사위원  
 sj.usgtf@gmail.com

**857.600.6755**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이 나사렛에 태어 났던 마을에 여러분이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께 사모 사랑하며, 그로써로 영원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같은, 같은, 같은, 사랑, 공생, 부활에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를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찬양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년교회 주일오후 12:30  
 속리교회 수-주일 속리교회  
 원주교회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상원교회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50, 목 오후 9:30

**비전교회**  
 The pastor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597  
 www.growwithus.org

**“보스톤에는 보스톤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톤코리아는 보스톤 언론으로서의 임무를 감어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걸으며 여러분에게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톤 한인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617.792.6876  
 hok@koreainfo.com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 HAPPY

##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풍광만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열매의 마음으로 만든 기지귀 케이크
- 국산산 유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다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mailto:Happydolsang@gmail.com)



## 크라우저 앤 서 로펌

###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안

VISIT US AT :  
[www.stevesuh.com](http://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http://www.suhlawyer.com)







##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mailto:info@stevesuh.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력 / 50여 지역 미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629,0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416 sf.  
New HVAC system 2015  
New Roof 2007, 좋은 학교  
이현주 401-935-3307



\$629,900  
**Sharon, MA**  
4 Beds, 2.5 Bath, 2436 sf.  
새집보다 좋은 집  
편리한 교통, 좋은 학교  
이현주 401-935-3307



\$399,000  
**Sharon, MA**  
4 Beds, 2 Baths, 1410sf.  
클레이룸, 오피스가 있음  
같이 업그레이드 된 집  
이현주 401-935-3307



\$730,000  
**Wellesley, MA**  
3 Beds, 2 Baths, 1656 sf.  
Great Location!  
조용한 주거환경, 좋은 학교  
제스리 978-806-0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8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325,000  
**Frammingham, MA**  
3 Beds, 1.5 Baths, 1452 sf.  
Excellent location  
Gina Choi 978-866-3248



\$1,399,000  
**Lexington, MA**  
5 beds, 3.5baths, 4050 sf.  
Maintained 2012  
Top notch construction  
OT Kim 617-620-8242



\$519,000  
**Texmsbury, MA**  
4 beds, 2.5 baths, 2558sf.  
Cul-de-sac 에 위치  
편리한 교통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569,000  
**Wilmington, MA**  
3 Beds, 2.5 Bath, 3100sf.  
편리한 교통, 관리가 잘된 집  
Anna Jung 617-780-1675



\$949,900  
**Arlington, MA**  
5 Beds, 3.5 Bath, 3498 sf.  
Quiet Cul-De-Sac  
Anna Jung 617-780-1675



\$580,000  
**Boston, MA**  
1 Bed, 1 Bath, 709sf.  
Luxury condo  
JayLee 781-654-5281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한국프렌차이즈가맹주 모집**  
Call for detail  
S-J Park 617-304-7001

**Condo Townhouse**  
\$273,900  
**Maynard, MA**  
2 Beds, 1.5baths, 1930sf.  
Anna Jung 617-780-1675

**Condo Rental**  
\$2,700  
**Boston, MA**  
1 Bed, 1 bath, 709sf.  
JayLee 781-654-5281

**Restaurant**  
\$275,000  
**Boston, MA**  
5년된 샌드위치 스토어  
JayLee 781-654-5281

**Restaurant**  
\$130,000  
**Cambridge, MA**  
High traffic main road  
발전 가능 생리매우 높음  
Sue Rong Tsai 617-792-8842

**Condo Rental**  
\$2,900  
**Lexington, MA**  
3 Beds, 2 baths, 1400sf.  
Janice Lee 978-806-0023

**Condo Rental**  
\$1,600  
**Aston, MA**  
2 Bed, 1 bath, 820sf.  
Gina Choi 978-866-3248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http://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http://www.NewStarRealty.com)

#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의 매출실적 / 50여 지역 다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Hazel Seung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Sara You  
617-899-3566

<b>Restaurant</b>  \$350,000 <b>Cambridge, MA</b>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Jung 617-780-1675	<b>Restaurant</b>  \$275,000 <b>Boston, MA</b> 5년된 큰 샌드위치스토어 Great potential to grow JayLee 781-654-5281	<b>Full Plant Cleaner</b>  \$180,000 <b>Salem, MA</b> Salem Downtown Turn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b>Restaurant</b>  \$499,900 <b>Brookline, MA</b>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sf. 180 인석 AnnaJung 617-780-1675
<b>Business Consulting</b>  <b>레스토랑 셧업 컨설팅</b> SI Park 617-304-7001	<b>Commercial</b>  <b>커머셜 건물 투자</b> SI Park 617-304-7001	<b>비즈니스 빈자리</b>  <b>센트럴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b> SI Park 617-304-7001	<b>병원 건물</b>  \$860,000 <b>Worcester, MA</b> 6552 sf., 38대 주차공간 Unas Memorial 병원 옆 AnnaJung 617-780-1675
<b>Coin Laundry</b>  \$55,000 <b>Brookline, MA</b>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Jung 617-780-1675	<b>Restaurant</b>  \$199,900 <b>Newton, MA</b> Korean-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and liquor license AnnaJung 617-780-1675	<b>Sushi Bar</b>  \$90,000 <b>Newton, MA</b> Good Location 성장 가능성 많은 비즈니스 AnnaJung 617-780-1675	<b>Full Plant Drycleaner</b>  \$19,000 <b>Norwood, MA</b> 40 lbs. Washing Machine 넓은 주차공간 AnnaJung 617-780-1675
<b>Investment</b> <b>E-2 &amp; EB-5 투자</b> 문의 781-259-4989	<b>Restaurant</b> \$290,000 <b>Somerville, MA</b> Famous Restaurant, As-is SI Park 617-304-7001	<b>Restaurant</b> \$440,000 <b>Boston, MA</b> Well-Established, As-is SI Park 617-304-7001	<b>Restaurant</b> \$2,600,000 <b>Dedham, MA</b> Legacy Place Center SueRong Tsai 617-792-6942
<b>Restaurant</b> \$490,000 <b>Boston, MA</b> 발전가능성이 많은 비즈니스 SI Park 617-304-7001	<b>Full Plant Cleaner</b> \$260,000 <b>Chelmsford, MA</b> Chelmsford Downtown AnnaJung 617-780-1675	<b>Restaurant</b> \$198,000 <b>Cambridge, MA</b> 하버드 스퀘어에 위치 AnnaJung 617-780-1675	<b>APT Rental</b>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것수 등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찾아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 한인 업소록

##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간접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베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청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텔레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 주요 단체

국제결혼자정신요양회	978-407-7554
국제결혼자정신요양회(네)	603-889-8201
뉴잉글랜드클럽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근로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 신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추세츠태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안인협회	508-826-5270
이탈도도인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이동체(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97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250
RH생명의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말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신실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살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6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이 벨교회	978-274-236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617-818-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명교회	978-390-6613
지구총방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감리교회	781-861-3877
켄싱턴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 간판

조이스간판	617-470-1083
-------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김민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침문	617-999-9616
이블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공인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 뱅통/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 동물병원

김분수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태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617-648-0584
한아름	617-547-8723

###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커파티	978-468-0039
그레이스커파티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413-5372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열골방	617-438-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2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희희헤어(Blo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 영상대여

해피영상	617-583-2339
------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 변호사

김성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지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가트)(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사무라이	617-236-7672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케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오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뉴스	617-871-1482
퀸지스치과	617-471-2184
퍼스트코스미덴탈그룹	781-391-5606
프롬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코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	





## '육룡이 나르샤' 날아오를 준비 마쳤다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육룡이 나르샤'가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다.

'육룡이 나르샤'는 조선의 기틀을 세운 여섯 인물의 야망과 성공 스토리를 다룬 픽션 사극이다.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이성계, 이방원, 정도전과 가상의 인물 분이, 이방지(쌍새), 무휼이 여섯 용이 돼 조선을 건국해 가는 과정을 그린다.

'육룡이 나르샤'가 독특한 점은 김영현, 박상연 작가의 전작인 '뿌리깊은 나무'의 프리퀄 격인 드라마라는 점이다. 이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세계관을 같이 하는 것은 물론 '뿌리깊은 나무'에서 탄생한 가상의 인물이 방지와 무휼이 다시 한 번 등장한다.

이날 공개된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는 개성 넘치는 여섯 캐릭터의 일면을 볼 수 있었다. 남

성적인 이성계(천호진 분), 근엄한 이미지와 달리 다양한 모습의 정도전(김명민 분), 총명한 이방원(유아인 분), 여린 여자의 몸에도 독심이 있는 분이(신세경 분), 한스러운 눈빛이 깃든 이방지(변요한 분), 어리바리한 듯 하지만 무사로 태어나는 무휼(윤균상 분) 등 짧은 영상에서도 이들의 캐릭터가 드러나면서 극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어우러질지 기대감을 더했다.

특히 영화 '베터랑', '사도'로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유아인의 새로운 작품이라는 점에서 수많은 이들의 눈길이 쏠려 있다. 유아인은 젊은 이방원 역할을 맡아 수없이 많은 사극에서 등장했던 이방원과 다른 캐릭터를 보여줄 생각이다. 그는 "이방원 캐릭터에 대한 끝림이 강렬했던 것 같다. 훌륭한 선배

님들이 다양한 작품에서 연기한 선이 굵은 캐릭터인데 그런 인물을 다소 젊은 배우인 내가 연기하면 어떤 새로운 게 만들어질까에 대해 흥미진진하게 접근했다"며 이방원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끝림이 있었다고 말했다.

'연기본좌' 김명민이 '불멸의 이순신' 이후 정도전이라는 굵직한 역사 속 인물을 맡았다는 점도 주목된다. 김명민은 '육룡이 나르샤' 속 정도전에 대해 "굉장히 입체적인 사람으로 표현했다. 내가 생각한 게 2D의 정도전이라면 '육룡이 나르샤'의 정도전은 3D를 넘어 4D 같은 정도전이다"고 설명하며 그간 사극에서 다뤄왔던 정도전 캐릭터와는 많이 다를 것이라 예고했다.

ppbn@news1.kr

## 美 언론, '베터랑' 연출력·연기력 호평 일색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2015년 대한민국 최고 흥행작인 영화 '베터랑'(감독 류승완)이 해외 유력 매체들로부터 연일 호평을 받고 있다.

영화지 버라이어티(Variety)는 최근 '베터랑'에 대해 "'베터랑'은 화려한 액션신들의 연속으로 관객들에게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고 호평했다.

이어 "오락적 요소가 완벽하게 하모니를 이루는 작품으로 전 세계 액션 영화 팬 및 아시아 영화 팬들에게 환영 받을 작품"이라고 극찬하며 "배우들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연기를 선보였으며 화려한 영상미와, 촬영 기술, 그리고 다채로운 로케이션 활용 역시 훌륭한 볼거리"라고 덧붙였다.

또한 버라이어티와 앙대산맥을 이루는 유명 영화지 할리우드 리포터(Hollywood Reporter)는 "빠른 페이스의 긴박한 액션 속에서 정두홍 무술감독의 근접 난투액션, 최영환 촬영감독의 촬영 기술 등이 빛났지만, 중심을 잡아주는 황정민의 연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완성도를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했다.

미국 대표 일간지 뉴욕타임즈는 "류승완은 유머감각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감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터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한다"며 "또한 잘 짜여진 스토리에 자신의 장기인 우아한 액션을 곁들여 최고의 오락영화를 만들어냈다"고 류승완 감독에 대한 찬사를 덧붙여 눈길을 모았다.

한편 지난 17일 북미에서 개봉한 '베터랑'은 한미 양국 동시 흥행작인 '국제시장'과 '암살'을 넘어서는 성적을 거두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베터랑'이 지난 2014년 북미 개봉 외국어 영화 흥행 TOP6위를 기록했던 '명량'(누적 매출 259만 달러), 흥행 TOP9를 기록했던 '국제시장'(누적 매출 228만 달러)의 최종 성적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luem\_chang@news1.kr



##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문근영 열연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문근영이 진흙에서 구르고 5시간 동안 비를 맞으며 몸을 아끼지 않는 열연을 펼치고 있다.

SBS 새 수목드라마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여주인공 문근영은 1일 공개된 사진에서 비를 맞으며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다. 아직 시체가 발견되기 전인 평화로운 마을 아치아라 임에도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듯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문근영은 아치아라에 온 바로 다음 날 오랫동안 암매장돼 있던 시체를 발견하며 미스터리한 사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한소윤 역을 맡았다. 문근



영은 조용한 시골 마을의 스산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5시간 동안 굵은 빗줄기를 맞으며 전력질주를 해야 했다.

제작진은 "문근영이 원래부터 수사물이나 스릴러를 좋아한다고 하더라. 그래서인지 얼핏 보기엔 그냥 흘러가는 신이 엄청난 복선을 담고 있을 수 있

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때문에 어떤 장면이든 몰입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감독님과 자주 대화를 나누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마을-아치아라의 비밀'은 '용팔이' 후속으로 오는 7일 첫 방송된다.

ppbn@news1.kr

## '여우사이' 정형돈, 녹화 중 복통 호소 '폐렴 투혼'

(서울=뉴스1스타) 백초현 기자 = '여우사이' 정형돈이 녹화 중 복통을 호소했다.

지난 29일 밤 10시50분 방송된 KBS2 속보이는 라디오 '여우사이' (이하 여우사이)에서는 라디오 극장 후 노래를 내보내는 동안 갑자기 괴로워하는 정형돈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정형돈은 라디오 극장이 끝난 뒤 폐부분을 붙잡고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다. 그는 "병원에 전화 한 통만 하고 올게. 너무 막... 아플 정도야"라며 몸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유희열은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형돈이 한테 아프다는 것을 방송에서 말하는 게 어떨까냐고 했다. 투혼 상태였다. 임원해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나와서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누리꾼들은 "여우사이 정형돈 폐렴 투혼 대단하다", "여우사이 정형돈 멋지다", "여우사이 정형돈 힘내길", "여우사이 정형돈 빨리 건강해지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star@news1.kr



# 한주간



# 시청률 순위

2015년 9월 21일 ~ 9월 27일

##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지켜라)	25.6%
2	KBS2	주말연속극(부탁해요엄마)	20.4%
3	SBS	드라마스페셜(용팔이)	20.1%
4	KBS1	KBS9시뉴스	16.4%
5	MBC	주말특별기획(내딸금사월)	16.3%
6	MBC	무한도전	16.0%
7	SBS	SBS월화드라마(미세스캡)	14.9%
8	SBS	아침연속극(어머님은내며느리)	13.7%
9	SBS	정글의법칙N니카라과	13.5%
10	MBC	아침드라마(이브의 사랑)	13.4%

## Tbo Play 주간시청률

1	SBS	드라마스페셜(용팔이)
2	MBC	일일연속극(위대한 조강지처)
3	SBS	일일드라마(돌아온 황금복)
4	KBS2	TV소설(별이되어빛나리)
5	SBS	SBS월화드라마(미세스캡)
6	MBC	아침드라마(이브의 사랑)
7	MBC	창사특별기획(화정)
8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지켜라)
9	MBC	일일특별기획(딱너같은딸)
10	SBS	아침연속극(어머님은내며느리)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바람이나 좀 쐬 (Feat. MIWOO)	개리
02	어깨	소유, 권정열
03	취향저격	iKON
04	보통연애 (Feat. 박보람)	박경 (블락비)
05	레옹	박명수, 아이유
06	겁 (Feat. 태양)	송민호
07	Dumb Dumb	Red Velvet
08	그렇게 됐어	플라이 투 더 스카이
09	맏소사	황태지
10	또 다시 사랑	임창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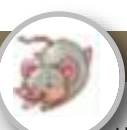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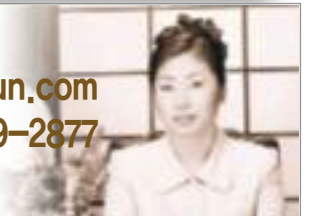
## 숫자 퍼즐 (Sudoku)

9								
	3	8	7	5			6	2
	7	2		3				
7		9			6	3		
		1		2		5		
		4	3			6		7
				7		2	4	
2	4			8	5	7	9	
								6

10월 4일 - 10월 10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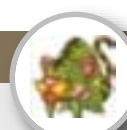
### 쥐띠 | 사랑은 계절과 같은 것

● 운수: 컨디션을 잘 체크해야 할 때입니다. 그냥 방치하면 만병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욕심을 버리세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면 결국은 더 큰 것을 잃어버리거나 도리어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 애정: 사랑은 계절과 같은 것입니다. 꽃피던 봄이 지나기엔 다시는 안 올 것 같아도 해마다 반드시 오는 것처럼 사랑도 다시 찾아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4, 7일 길일. 6, 9일 주의.



### 소띠 | 계산부터 하지 말아야

● 운수: 누군가에게 베푼 것이 있어도 잊어버리도록 하세요. 공치사는 오히려 흉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일이 되기도 전에 계산부터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서서히 회복될 것입니다. ● 애정: 주위에서 반대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섭섭하다고 생각하지만 말고 다시 한 번 상대를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5, 8일 길일. 7, 10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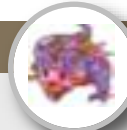
### 범띠 |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 운수: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이 흔한 말 같지만 정확하게 맞는 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때입니다. ● 금전: 포기했던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결코 빌려줄 것 같지 않았던 상대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애정: 아직은 누구를 만나거나 좋아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관심이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6, 9일 길일. 5, 8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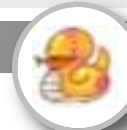
### 토끼띠 | 똑바로 앞을 보고

● 운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는 똑바로 앞을 보고 서있기만 하세요. 그러면 곧 한 발을 내딛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 금전: 금전적으로 유리한 시기여서 이익이 따라줄 것입니다. 다만 조급한 마음은 갖지 말아야 합니다. ● 애정: 사랑을 놓치고 후회하기 전에 지금 당장 용기를 내서 마음을 전해보세요. 진실한 마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7, 10일 길일. 6, 9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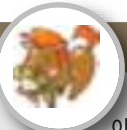
### 용띠 |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 운수: 주위의 충고에 귀 기울이세요. 필요 이상의 자신감 때문에 남들의 조언도 안 듣고 일을 추진하다가 잘 못될 수 있습니다. ● 금전: 순간의 실수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지금 당장은 좀 힘들겠지만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서로 이해하고 아껴주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5, 6일 길일. 4, 8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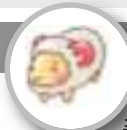
### 뱀띠 | 이 순간을 슬기롭게 넘어가면

● 운수: 상대방의 실수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시기입니다. 이 순간을 슬기롭게 잘 넘어가면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 금전: 들어오는 돈이나 나가는 돈이 빈번하여 돈주머니에 돈이 고이지 못하고 들쭉날쭉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 애정: 사랑하면서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나가야 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4, 9일 길일. 5, 8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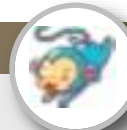
### 말띠 | 마음의 짐을 덜게 되니

● 운수: 매년 신세를 지던 사람에게 신세를 갚을 수 있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모처럼 마음의 짐을 덜게 되니 출가분해됩니다. ● 금전: 매매는 생각했던 금액과는 차이가 나더라도 추진해야 합니다. 수입이 나아지고 일이 이루어집니다. ● 애정: 숫자상의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사춘기 소녀나 소년 같은 감정이 되살아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5, 10일 길일. 4, 6일 주의.



### 양띠 | 새로운 각오를 단단히 하고

● 운수: 우연히 하게 된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잘 한다고 해주고 인정받는 일이 있겠습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스스로도 놀라게 됩니다. ● 금전: 가까운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적으로 회복되어갑니다. ● 애정: 새로운 각오를 단단히 하고 마음을 잡아하겠습니다.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고 현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6, 9일 길일. 4, 8일 주의.



### 원숭이띠 | 차츰 해결되어가고

● 운수: 거절을 당할까봐 미리 겁부터 내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서 시도해 볼만한 때입니다. ● 금전: 연기를 거듭해오던 일들이 차츰 해결되어가고 있습니다. 동업자나 귀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설레게도 하고 뜬금없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7, 10일 길일. 5, 8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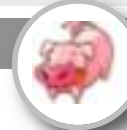
### 닭띠 | 모래로 넷물을 막으려고

● 운수: 모래로 넷물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지나가야 합니다. ● 금전: 나갔던 돈은 일부만 들어올 것입니다. 하찮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 애정: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단 한 순간이라도 상대가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는지 의심이 듭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4, 8일 길일. 5, 6일 주의.



### 개띠 | 마음을 담아서 하는

● 운수: 마음을 담아서 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힘들어도 귀찮아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면 결국은 누군가에게 그 마음이 전됩니다. ● 금전: 수입은 늘고 지출은 적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모든 일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 애정: 깊이 생각해 보세요. 상대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게 되면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에도 희망이 보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5, 9일 길일. 4, 7일 주의.



### 돼지띠 |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 운수: 열심히 하거나 하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프로그 되려면 열심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잘하는 것입니다. ● 금전: 불안한 상태에서 조금씩 나아지지만 아직은 만족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 애정: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이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6, 10일 길일. 5, 8일 주의.



## 소유X권정열, 기대고 싶은 위로의 노래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소유X권정열이 위로의 노래를 선사했다. 소유X권정열은 1일 오후 6시 방송된 Mnet '엠카운트다운'에서 '어깨'를 선보였다. 이날 소유는 권정열에 맞춘 듯 동그란 안경을 쓴 모습으로 색다른 느낌을 풍겼다. 소유와 권정열은 외로

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듯한 가사를 쓸쓸한 듯 하면서도 달콤한 목소리로 노래하면서 '어깨'가 가진 메시지를 전했다. '어깨'는 서정적인 멜로디와 따뜻한 노랫말이 인상적인 어쿠스틱 곡이다. '썸'이 요즘 남녀의 연애 트렌드를 주제로 젊은 세대의 사랑을 겨냥했다면 '어깨'는 주위에 지지고 힘

든 모든 이들을 위한 힐링송이다. 한편 이날 '엠카운트다운'에는 갓세븐, 노지훈, 다이아, 러블리즈, 레드벨벳, 몬스타엑스, 베리굿, 빅스타, 세븐틴, 소유X권정열, 씨엔블루, 업텐션, 에이프티엘, 에이리, 음드, 윤수현, 전진, 제시, 24K 등이 출연했다. ppbn@news1.kr

## '발칙하게 고고' 정은지, 애교 4종 세트

(서울=뉴스1스타) 박건욱 기자 = 가수 겸 배우 정은지의 애교 4종 세트가 공개됐다. 1일 KBS2 새 월화드라마 '발칙하게 고고' 제작진을 통해 공개된 사진속 정은지(강연두 역)는 특유의 활기차고 싱그러운 매력을 한껏 발산하고 있다. 그는 침낭 속에서 꽃받침 포즈를 취하는가 하면, 카메라를 발견하고 활짝 웃어보이고 있다. 실제로 정은지는 연일 계속되는 활

영 강행군에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스태프들의 사기를 끌어 올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편 '발칙하게 고고'는 높은 대입 진학률을 자랑하는 세빛고에서 춤을 사랑하는 열등생들의 동아리와 우등생들의 대입 스펙용 동아리가 치어리딩으로 통합합되면서 펼쳐지는 열여덟 청춘들의 좌충우돌 성장스토리를 그려낸다. 오는 5일 밤 10시 첫 방송. kun1112@news1.kr

## 노현희 "유재석 신인 시절, 오래 못가겠다 싶었다"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노현희가 유재석의 신인 시절에 대해 언급했다. 노현희는 1일 밤 11시15분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3'에서 과거 '쇼 행운열차'라는 프로그램에서 당시 신인이었던 유재석과 코너를 했다고 밝혔다.

노현희는 "유재석과 파트너가 돼서 고정 프로를 했다. 매주 일요일마다 얼굴을 봐야 하는데 신인이라 긴장을 많이 하고 정말 못하더라. 나는 콘티에 짜여진 연기를 하는데 생방송에서 마음대로 애드리브를 하는 거다"며 유재석 때문에 당황했다고 말했다.

유재석은 당시에 대해 "애드리브가 아니라 대사가 생각 안 나서 그런 거다"고 털어놨다. 노현희는 "이 사람 오래 못가겠다 생각했는데 국민 MC로 잘 나가는 걸 보니까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없구나 싶었다"고 덧붙였다. ppbn@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XOOM energy** SLP Inc. Xoom Partner  
**20~30%**  
전기요금 National Grid와 EverSource보다 싸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에너지 규제 감독관 면제 전기와 천연가스, 재생 에너지를 XOOM Energy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XOOM Energy는 미국에서 가장 큰 에너지 Retailer로서 현재 미국 18개주에 있는 700만리터 구역에서 비즈니스와 개인주택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대표  
더 자세한 내용은 www.xoomenergy.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81.266.7245**  
한국어 상담 : 예진호 이사장 / energy@xoom-energy.com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OA#00 - GDT - LMS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별 프로그램으로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대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풍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상업적 목적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 TBO PLAY RATINGS

##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나의 판타스틱한 장례식' 경수진, '청순미 넘쳐'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경수진이 SBS 단막극 '나의 판타스틱한 장례식' 비하인드 사진을 공개했다.

경수진은 25일 공개된 사진에서 하얀 원피스를 입고 진지하게 연기에 몰입하고 있는 모습이다. 편안한 의상에 청순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극의 분위기를 짐작케 한



다. '나의 판타스틱한 장례식'은 삶의 끝자락에서 운명적으로 재회한 27세 동갑내기 청춘의 애틋한 사랑을 그린다. 경수진의 상대역으로는 최우식이 출연한다. 이들은 머리가 고장난 여자 장미수와 심장이 고장난 남자 박동수 역을 각각 연기한다.

경수진이 맡은 장미수는 적당히 속물이고 상당히 냉소적인 성격의 인물로, 버림 받고 배신 당한 기억 때문에 죽음 앞에서조차 자

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여자다. 3년 전 뇌종양 치료를 받았지만 재발해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다.

촬영을 마친 제작진은 "청순한 경수진의 이미지가 극중 캐릭터와 잘 맞아 떨어져 미수를 더욱 입체감 있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영원한 사랑을 빚어내는 두 청춘의 웰-다잉 스토리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ppbn@news1.kr

### 티보플레이 9월 4째주 시청률 BEST 10

- |    |     |                |
|----|-----|----------------|
| 1  | SBS | 응팔이            |
| 2  | MBC | 위대한 조강지처       |
| 3  | SBS | 돌아온 황금복        |
| 4  | KBS |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
| 5  | SBS | 미세스 캡          |
| 6  | MBC | 이브의 사랑         |
| 7  | MBC | 화정             |
| 8  | KBS | 가족을 지켜라        |
| 9  | MBC | 딱 너 같은 딸       |
| 10 | SBS | 어머님은 내며느리      |

### 티보플레이 9월 4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SBS | 나의 판타스틱한 장례식   |
| 2 | KBS | 속 보이는 라디오 여우사이 |
| 3 | KBS | 한식, 세계를 품다     |

### 티보플레이 9월 4째주 최신 영화

- |   |              |         |
|---|--------------|---------|
| 1 | 오피스          | 고아성/박성웅 |
| 2 | 미션 : 톱스타를... | 오창석/정훈  |

## '오피스', '뷰티' '암살' 제치고 예매율 3위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오피스'가 1000만 영화 '암살'과 '베테랑'의 흥행 속에서도 가파른 예매율 상승세를 보이며 흥행을 예고해 눈길을 끈다.

이러한 가파른 예매율 상승의 원인은 현실밀착 스텔러라는 요소와 충무로 대세 배우들의 열연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무실'이란 익숙한 공간에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갈등과 인턴 사원을 향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그리고 실적만 중요시하는 상사, 아부하는 직원 등 주변에 있을 법한 인물들의 디테일한 묘사가 현시대 직장인들을 대변하면서 큰 공감을 끌

어낼 것으로 보인다.

또 고아성, 박성웅, 배성우, 김의성, 류현경 등 충무로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은 탁월한 주연들과 박정민, 오대환, 손수현 등 차세대 스타들까지 가세해 캐릭터의 디테일함을 살려 영화의 몰입도를 배가시킬 것이다. 한편 '오피스'는 자신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하고 종적을 감춘 평범한 회사원이 다시 회사로 출근한 모습이 CCTV 화면에서 발견되고 그 후, 회사 동료들에게 의문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스텔러 장르의 영화다

aluem\_chang@news1.kr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무제한 시청 월:

**\$39.99**



본문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됩니다. The Best On Demand, TBO. 인터넷TV(OTT) 서비스인 TBO Play, 콘텐츠로 인해 일부 TV로 내보내지 않으며, TBO TV는 인터넷망에 연결된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The Best On Demand, TBO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ecn@bostonpremierrealty.com

**리스팅**

1. Full Plant 플리너 : 맥싱턴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M**
2. 보스톤 인근 일식식당 : 좋은 위치. Beer and Wine 라이선스 포함. **\$300,000**
3.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4. 드롭오프 스토어 : Norwell에 위치. **\$20,000**
5. 약세사리 카트 : 큰 물안에 위치함. 보스톤 북부. 안정적인 수입. **\$55,000**
6. Single family in Danvers : 4Bed 2 and 1/2 Bath, 2,620 s.f. 2 car garage. 좋은 위치. Asking **\$550,000**
7.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4 Bed 2 Bath, 1,800 s.f. 큰 공간, 2대 주차공간, 좋은 위치, 최상의 학교. Rt 9 인접. 근처 Chestnut Hill 쇼핑몰과 불과 몇분거리에 위치함. **\$2,950**
8. 렌트 : 1776 Commonwealth ave, Unit 2, Brighton. 4 Bed 2 Bath 2,379 s.f 히팅, Hot Water 1대 주차공간 포함. **\$3,95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16회

# 시간따라 흘러가고 세월따라 늙어가는...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늘 그렇듯이 모두가 흘러간다. 계절따라 바람도 제 몫을 다하며 그렇게 흐르고 있다. 그에 따라 시간도 흐르고 세월도 흘러간다. 그러니 어찌 사람만이 제 자리에 멈출 수 있을까 말이다. 제아무리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출 수 없는 것이 시간이고 세월따라 나이 들고 늙어가는 것이 인생이다. 마음 같아서 야 시간따라 흘러가는 것을, 세월따라 늙어가는 것을 붙잡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게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의 이치에 역행하는 일이다. 이렇듯 살아 숨을 쉬는 생명들과 함께 자연과 더불어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자연스러운 일이며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까닭이다.

언제나 자연스러움이 가장 아름답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한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자신을 추스르고 행하며 사는 일은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바깥의 치장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신과 마주하며 돌아볼 수 있다면 더없이 귀한 일이다. 자신과 대면하며 마주할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면 시간따라 흘러가고 세월따라 늙어가는 일이 그리 섭섭하지 않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며 아쉬움 없는 삶이 그 어디에 있을까. 이렇듯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라면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요즘은 남편에게도 가끔 이런 얘길 들려준다. 세상 나이 오십 중반쯤에는 곁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리고 사랑과 정성으로 잘 챙기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이다. 아내의 말을 들으며 곁에서 남편은 피식 웃음으로 답해온다. 요즘은 이렇듯 자연스러움이 제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무엇인가 인위적으로 하는 모습은 부자연스러워 보여 거북스럽다. 세상 나이가 어리고 젊어서는 뜨거운 피의 열정으로 욕심도 내어보지만, 세상 나이 오십을 넘어 중간 고개를 오를 즈음에는 자연스럽게 사는 모습이 가장 편안해 보여 좋다.

인생이란, 이렇듯 살면 살수록 오래도록 끓인 곰탕처럼 진국 맛이 절로 나는 것이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을까. 그동안 삶을 통해 사람이나 일에서 크게 작게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삶의 지혜를 얻은 것이다. 그러하기에 그 어떤 일에서든 애써 안달하거나 보채는 일이 적고 여유롭게 기다리는 법을 터득한

까닭이다. 그것은 긴 시간 속에서 세월의 연륜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세상에는 공짜가 없음을 그래서 더욱 감사한 오늘을 맞는다. 삶의 일상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들은 모두가 인생의 여정에서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것은 계속 새로워지니 그것을 쫓아가는 있는 정신마저 없어진다. 요즘 외출을 하려다 셀폰을 집에 놔두고 나온 것을 알게 되면 한참을 나와 하이웨이를 탔더라도 다시 되돌아가서 전화를 가지고 온다.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부리던 전화가 상전이 되어 모시게 되었다. 어찌랴, 이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이 걸 말이다. 하지만 무엇인가 영성해진 것 같은 이 흐트러진 마음은 나 자신이 받아들이기에도 영 편하지만은 않다. 더 늦기 전에 나를 제대로 잘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을 거듭해본다. 우리의 일상에서 편리한 것은 소중한 내 것을 잃게 하는 대가를 원한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 흘러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 또한 추억일 게다. 그렇다, 서로에게 남은 아름다운 추억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귀하다. 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산다는 어느

글귀가 떠오른다. 이렇듯 지금 곁에 있는 가까운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챙겨보는 시간이면 좋겠다. 새로운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챙기며 그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길 소망해 본다. 지금의 이 시간이 얼마 지나면 또 하나의 고운 추억으로 남을 오늘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삶이 바로 후회를 줄이는 삶이다.

잡을 수 없는 시간을 묶으려 애쓰지 말고 세월따라 늙어가는 젊음을 붙잡으려 한탄하지 않는 삶이면 좋겠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내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흘러가는 세월 속에 내 무게로 자리할 수 있다면 최고의 인생이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으로 이미 충분한 당당하고 멋진 그런 삶의 주인공이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이 허하고 채워지지 않아 시간에 쫓겨 살고 세월이 주눅이 들어 당당하지 못한 것이다. 그 누구의 어떤 색깔과 어느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모습에서 최선을 다하며 시간따라 흘러가고 세월따라 늙어가는 삶이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인 것이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오매, 단풍들것네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날씨가 갑자기 서늘해졌다. 덩달아 마음도 허롭다. 대신 젖었던 몸은 뽕송이다. 일교차가 큰데, 모두 몸조심에 감기 조심하시라.

추석이 지났다. 추석은 한가위라고도 한다. 중추절仲秋節이라고도 했다. 이 말을 요사이에도 쓰는지 그건 모르겠다. 송편을 빚고, 가족이 모이는 때이다. 송편은 드셨는지, 솔잎 위에 갖춰낸 송편 김내가 코끝을 간지린다. 가을 한가위 맑은 가을 밤엔 달이 무지 크다. 한가위 밤은 둥근 달처럼 그윽할텐데, 단풍 기운은 조용하고 스산하다. 영랑이다.

"오매, 단풍 들것네."  
장광에 골 붉은 감잎 날아오아  
누이는 놀란 듯이 치어다보며  
"오매, 단풍 들것네."

추석이 내일모레 기둘리니  
바람이 자지어서 걱정이리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오매, 단풍 들것네."  
(김영랑, 오매 단풍들것네)

이 무렵 가을엔 과꽃도 핀다. 한국 동요에 나온다. '누나는 과꽃을 좋아 했지~요.' 가을엔 국화일진대, 과꽃도 국화와 비슷하게 생겼 듯 싶다. 국화가 삼사십대 중년의 누님이라면, 과꽃은 십대 중후반의 누나일게다. 장독대 주변엔 과꽃과 같이 맨드라미, 채송화도 같이 자랐다. 채송화란 이름도 예쁘다. 과꽃이 누나라면, 채송화는 어린 누이 순이처럼 읽힌다. 단발머리에 여전히 나이 어린 여자동생 말이다. 나

는 여동생도 없으니 그저 상상 속의 여동생이다. 강총치마에 눈망울이 초롱이다. 여동생 머리엔 얇은 가을 햇빛 단내가 날 것이다. 추석은 과꽃 같은 누이와 국화 같은 누나와 같이 모이는 시절이다. 어린 누이 순이는 동구 밖에서 기다릴 것인가? 단풍에 가슴 설레는 시집간 누이를 기다릴 건가?

지난 봄에 가까운 친구의 딸 결혼식 청첩을 받았다. 사위가 누구인지 궁금했다. 내가 물었는데, 대답이 막연하다. '널 닮은 지독한 범생이다.' '교회 오빠다.' 사위가 내 아들이 아닌 바엔 날 닮았을리 없다. 내 청년시절과 비슷한 모양이다. 내가 웃은 건, 그의 딸이 교회에서 만난 남편을 '교회오빠' 라 했기 때문이다. 교회 오빠는 있는데, 교회 누나는 없을리 없다. 교회 오빠를 만난 그 친구 딸아이도 추석

에 다녀 갔을 거다.  
간운보월看雲步月이란 말이 있다. 구름을 쳐다보고 달빛 아래를 걷는다는 해석이다. 객지에서 고향집을 그린다는 말이란다. 추석에도 고향에 갈 수 없는 이들에게 달은 서늘해서 처량하다. "달하 노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기야 어강도리. "우리 고갯요 정읍사井邑詞 첫구절이다.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에게 달은 조바심일게다. 집으로 돌아가는 남편의 마음은 바쁘기만 하다. 고향 마당에는 과꽃뿐 아니라, 채송화도 피었을텐데. 미국에서도 과꽃을 볼 수있을까만, 단풍은 들기 시작했다. '오매 단풍 들것네'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나'  
(마태 13:56)

# 2015 NFL 시즌 초반 최강으로 꼽히는 3팀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2015 NFL 정규시즌이 시작하자 3주가 지나 각 팀별로 3경기씩을 소화했다. 아직 시즌 초반이기는 하지만 강한 팀과 약한 팀은 어느 정도 구별이 되고 있다.

3주차까지 경기를 마친 상태에서 7팀이 3승 0패를 기록하며 무패가도를 달리고 있다. 반면에 4팀은 아직까지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내리 3연패를 기록하고 있다.

3승을 기록하고 있는 7팀 중에서도 그린베이 패커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정규시즌은 아직 14주나 남아 있지만 초반 레이스에서 이 3팀이 가장 강한 팀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현재 NFL에서 가장 핫한 팀으로 꼽히는 패커스, 패트리어츠, 카디널스 팀을 살펴보자.

### Arizona Cardinals

숫자로 나타나는 기록만 본다면 카디널스가 현재 NFL의 베스트 팀이다. 3경기 동안 카디널스는 상대팀과 77점 차이로 승리했고, 이는 NFL에서 가장 큰 점수 차이이다. 최대한 많은 점수를 내고, 최소한의 점수를 허용하며 3연승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카디널스가 기록하고 있는 77점 차이는 역대 NFL 기록을 통틀어 12번째로 큰 점수 차이이다.

카디널스가 3주 동안 경기에서 보여준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다. 가장 눈에 띄는 약점은 오펜시브 태클이다. 오펜시브 태클에서 실수를 범하는 모습도 종종 보인다. 그렇지만 2경기 출장 정지에서 복귀한 바비 매시가 경기 감각을 회복하면 오펜시브 태클의 약점도 보완될 것이다.

### New England Patriots

활화산 같은 패트리어츠의 공격력을 막을 수 있는 팀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패트리어츠의 기세가 무섭다. 2015년의 패트리어츠는 정규시즌을 무패로 마쳤던 2007년 패트리어츠와 비교되고 있다.

패트리어츠의 쿼터백 탐 브래디는 1,112 패싱 야드를 기록하며 NFL에서 1위를 하고 있다. 심지어 브래디는 현재까지 패싱 야드가 1,000을 넘은 유일한 쿼터백이다. 와이드 리시버 줄리안 에들먼은 30번의 패스를 받아 NFL에서 2번째로 많은 패스를 받았고, 타이트 엔드 랍 그롱코스키는 야드와 터치다운 수에서 모두 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패트리어츠의 가장 큰 약점은 러닝



패트리어츠의 타이트 엔드 랍 그롱코스키는 올해 NFL에서 가장 많은 터치다운을 성공하고 있는 타이트 엔드다

에 대한 수비다. 패트리어츠를 떠난 빈스 윌포크의 빈 자리를 메꾸기 위해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지명한 말콤 브라운의 부진이 아쉬운 대목이다. 브라운은 1라운드에서 지명됐지만 NFL 루키 수비수 중에 가장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패트리어츠는 4주차에 경기가 없이 휴식 시간을 갖는다. 1주일의 휴식을 취한 뒤에 패트리어츠의 공격이 더 무섭게 타오를 수도, 혹은 추진력을 잃고

식어버릴 수도 있다.

### Green Bay Packers

주전 와이드 리시버 조디 넬슨이 없어도 패커스의 공격은 막을 수가 없다. 올해 패커스의 공격이 더욱 매서운 이유는 매주 다른 선수가 스타 플레이어로 발돋움한다는 것이다. 1주차엔 제임스 존스가 2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받았고, 2주차에는 리처드 로저스가 예상치 못한 활약을 펼쳤다. 가장 최근 경기

서는 랜달 콕이 승리의 주역이었다. 리그 최고의 쿼터백 아론 로저스가 이끄는 패커스의 공격은 그야말로 적수가 없다.

패커스가 보완해야 할 부분은 오펜시브 라인이다. 오펜시브 라인이 일관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로저스가 워낙 움직임이 좋은 쿼터백이기 때문에 오펜시브 라인이 부실해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jsi@bostonkorea.com

## 부 고

### 삼가 알려드립니다

전 노인회장 백린 선생께서 2015년 9월 30일 오전 4시에  
향년 92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이에 한인 여러분께 삼가 알려드립니다.

#### <장례 일정 및 장소>

2015년 10월 2일 (금) 오후 6시: 웨이크  
오후 7시: 입관 예배  
2015년 10월 3일 (토) 오전 10시: 장례 예배 (발인)  
오후 12시: 하관 예배

문의 전화: 617.244.6383

웨이크, 입관 및 장례 예배 장소  
브루클라인 소재 보스턴 한인교회  
(32 Harvard St. Brookline, MA)  
하관 예배 장소  
포레스트 힐 묘지  
(95 Forest Hills Ave. Jamaica Plain, MA)

#### 유가족 미망인: 최선경

3남 1녀: 백경희, 박개영  
백흥기, 이은희  
백영기, 양은진  
백형기, 홍경애

손주: 브라이언, 앤드류  
제이슨, 크리스탈  
제니(Jennie), 윌리엄  
로렌(Lauren), 숀(Shawn)  
에밀리(Emily), 렉시(Lexie)





독자기고  
김철

##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6. 체로키어의 눈물의 길 (4)

문명화된 5개 부족 (계속)

조지아 주 정부는 우스터가 조지아 주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체로키족 영토로 들어와서 인디언들을 돕고 있는 데에 대한 죄를 물어 체포하여 투옥시켰다. 체로키족이 강제추방으로 어려웠던 시기에는 발행이 중단된 적이 있었지만 이 신문은 오늘날까지도 인터넷신문 발행으로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남북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이들 5개 부족은 과거에 남북 연합소속 세력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워도 다시 한번 인지는 몰라도 남부군에 가담하여 북군과 싸웠다. 물론 북부에서 거의 백인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던 대부분의 인디언 부족들은 북군 편에 가담하였다.



〈세콰이아(Sequoyah)〉



〈체로키 문자〉

‘Paul Revere & the Raiders’ 라는 이름을 가진 록밴드는 1971년에 체로키 인디언의 비극적 운명을 노래하는 ‘인디언보호구역 (Indian Reservation)’ 을 발표하여 큰 히트를 기록하였는데 7월 24일에는 빌보드차트 1위에까지 올라갔다. 슬픈 사연으로 가득찬 가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hey took the whole Cherokee Nation  
Put us on this reservation  
Took away our ways of life  
The tomahawk and the bow and knife  
Took away our native tongue  
And taught their English to our young  
And all the beads we made by hand  
Are nowadays made in Japan

Cherokee people

Cherokee tribe

So proud to live

So proud to die

They took the whole Indian Nation

Locked us on this reservation

Though I wear a shirt and tie

I'm still a red man deep inside

Cherokee people

Cherokee tribe

So proud to live

So proud to die

But maybe someday when they've learned

Cherokee Nation will return

Will return, will return

Will return, will return

그들은 체로키 땅 전부를 가져갔네

우리를 이 보호구역에 집어넣고

우리의 생활 방식, 손도끼

그리고 활과 칼마저 가져가 버렸네

우리 고유의 말도 빼앗고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네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쥘 구슬들은

지금은 일본에서 만들어 내고 있다네

체로키 사람들, 체로키 부족

자랑스럽게 살고 자랑스럽게 죽네

그들은 인디언 나라의 전부를 가져갔네

우리를 이 보호구역에 가둬놓고

내가 셔츠와 타이틀 걸치긴 하지만

나는 아직도 가슴 깊은 곳에선 인디언이라네

체로키 사람들, 체로키 부족

자랑스럽게 살고 자랑스럽게 죽네

그러나 아마도 언젠가 그들이 깨닫게 되면

체로키 나라는 다시 살아나리다

다시 살아나리다

다시 돌아오리다

(다음 호에 계속)

BILLBOARD (USA) MAGAZINE'S SINGLES CHART FOR WEEK OF: July 24, 1971

TW LW Wks. Song-Artist

1	2	16	INDIAN RESERVATION	Raiders
2	1	12	IT'S TOO LATE/I FEEL THE EARTH MOVE	Carole King
3	3	8	YOU'VE GOT A FRIEND	James Taylor
4	4	10	DON'T PULL YOUR LOVE	Hamilton, Joe Frank and Reynolds
5	6	9	MR. BIG STUFF	Jean Knight
6	5	16	TREAT HER LIKE A LADY	Cornelius Brothers and Sister Rose
7	8	7	DRAGGIN' THE LINE	Tosmy James
8	9	5	HOW CAN YOU MEND A BROKEN HEART	Bee Gee
9	12	14	TAKE ME HOME COUNTRY ROADS	John Denver
10	13	8	SOONER OR LATER	Grass Roots

〈1971년 7월 24일자 빌보드 차트(싱글 부문)〉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00 태권도와 김운용(10)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독까지 한 그는 1주일 뒤에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큰 치욕을 겪게 될 것을 예견하고 그런 언사들을 기자회견장에서 했을까?

2001년 10월 29일, 대한태권도협회 전체 이사회가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되었다. 김운용(당시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이 입장하기 전부터 설전이 오가며 분위기는 긴장을 지나 혐악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결국 그는 이사회 진행을 포기하고 다급히 ‘포신’ 하였다. 마침내 여기저기서 욕설이 튀어나왔고, 일부 사범들은 그의 차양 둘러싸고 태권도계를 떠나라고 소리쳤다. 태권도인들로부터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치욕의 현실을 감내하면서 그는 자리를 떴다. 그리고 이를 후 제주도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연맹(WTF) 총회에서 그는 만장일치로 총재에 재추대되었지만 그의 위상이 전과 같지 않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다. 국내외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에게 WTF내의 유럽세가 고개를 들면서 또 한 무리의 반김운용 패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는 국내 태권도계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직의 사임을 뜻을 비쳤고, 연이어 개최된 세계선수권대회에서의 초라한 우리나라의 성적은 그를 더 궁지로 몰게 되었으며, 동시에 정치권에서 나도는 소문(고령이니까 은퇴)과 체육단체 구조개편을 시사(2001

년 11월 6일 남궁진 문화관광부 장관)하는 소식은 그의 입지를 좁혀만 갔다. 그리고 11월 15일 국기원에서 열린 ‘태권도 한마당’, 이 행사는 태권도인들의 축제같은 모임이다. 하지만 축제의 한편에는 ‘범태권도 바로 세우기 운동연합’ 이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김운용의 퇴진을 외쳤다. 태권도인들의 축제는 전장戰場으로 변했고 양측의 세력대결이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가면서, 김운용이 대한태권도협회 회장과 국기원 원장(143)을 사임하였다. 그의 후임으로는 구천서가 취임하였다. (2002년 2월 5일)

그 후로 김운용은 확인과 미확인된 비리의 구설수에 하루도 조용할 날 없이 보내야만 했다. 급기야 정치권/국회에서 더 이상 그의 확인된 비리를 묵과할 수 없어서 2003년 7월 31일 ‘국회의원 김운용 징계안(의안 제162510호)’을 제출하였다. 징계안의 주요내용은 헌법 제46조 3항(이권운동의 금지)과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제4조(직권남용 금지)의 위반이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지만 확인된 비리는 더 이상 그의 우군이 아니었다. 그는 2004년 1월 9일 국회의원, 국기원 원장,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직에서 사퇴하였다. 하지만 IOC위원직은 사퇴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1월 28일 구속되었다. 죄목은 38억원 횡령, 8억1

천만원의 배임수재(대가성 금품), 외환거래법 위반 등이다.

영어圈의 몸으로 지낸 김운용은 초지일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다. 그는 현재도 결백하다고 주장하며, 국제스포츠의 거물을 정치적으로 죽이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한다. 일례로 그의 저서 ‘김운용이 만난 거인들’의 사마란치 전 IOC위원장 편을 보면 “세계의 지도자들 중에서 사마란치만큼 한국을 많이 찾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2005년 여름에 서울에서 있는 ANOC 총회에는 오지 않았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전후해서 세 번이나 베이징에 오고도 서울은 찾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의 친구이자, 올림픽운동에 지대한 공헌을 한 현역 IOC부위원장을 한국정권이 정치적으로 범죄자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라고 주장했다. 사마란치는 종신 IOC 명예위원장을 지내다가 2010년 90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그가 김운용 IOC부위원장의 구속 후 한국을 찾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김운용의 주장이 맞을까? 아니면 김운용의 IOC위원장 출마 당시부터 소원해진 관계 때문일까? 아마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고령의 사마란치가 일정을 그냥 그렇게 잡은 것은 아닐까?

143) 국기원 원장직은 유지하다가 2004년 1월 9일 사퇴하였다.





# KPOP 90's LEGENDS SUPER CONCERT

**DJ DOC, COOL, JINUSEAN, R.ef, JO SUNGMO, KIM WONJUN, CLON, CHULI & MIAE**

[www.kpop90.com](http://www.kpop90.com)

THE THEATER  
AT  
MADISON SQUARE GARDEN



8PM SAT OCTOBER 31, 2015  
4 Pennsylvania Plaza, New York, NY 10001

★ Tickets available at : [ticketmaster](http://ticketmaster.com) Ticketmaster.com / 교차로 718-460-0114



New Revolution  
Entertainment Inc.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같이 어울려 사는 가족이 최고의 유산이다'  
- 좋은 습관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XV -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중추절이라고도 일컫는 추석은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가을 저녁 또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한국의 한가위 추석을 온 세상에 알리듯, 지난 일요일 33년 만에 찾아 온 '슈퍼 문 월식 (Super Moon Eclipse)'은 반짝 반짝 빛나는 별들과 함께 근 한시간을 넘게 매사추세츠의 가을 밤을 절세의 명작으로 그려냈다. 이 감명깊은 한가위의 밤을 보며,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 형제, 친구들과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과 그리움이 느껴지면서,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가족의 중요성이 성큼 다가왔다.

한국사회는 일제의 압박, 해방, 6.25를 위시한 극심한 사회혼란을 겪으면서 생존 자체에 위협이 가해지는 시기를 겪었다. 전쟁으로 남북한 둘로 갈리면서, 북한에 두고 온 부모와 형제들을 평생 그리워하며 사는 이산 가족이 생겨났다. 서분네 할머니는 스물 한살 어린나이에 갖 시집을 갔다가, 모처럼 친정을 방문하던 날 6.25가 터졌다. 남한으로 피난 갈 때, 금방 따라갈테니 며칠 뒤에 만나자던 어머니를 끝내 만나지 못했다. 안타까운 이별을 끝으로, 서분네 할머니는 어머니를 평생 그리워 하며 살아왔다. 이제 팔순을 훌쩍 넘으신 할머니는 매일 저녁 한강에 나가셔서, 그리움이 쌓인 '한'을 강물에 띄우곤 하신다.

아이 셋을 키우는 동안, 한국은 급격한 변동의 시기를 겪었다. 50년대를 지나 1962년부터 본격적인 산업화의 추진, 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출현은 한국 산업 자본주의와 경제적인 부의 획득의 중요성 등 물질주의를 부추겨 갔다. 산업화가 활성화되면서 대가족이 아닌 핵가족의 친밀화가 두드러지게 중요화되면서 '내 가족만 잘 되면 된다'는 '핵가족 개인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서분네 할머니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다. 생존육구가 어느정도 해결이 되면서, 세 아이들의 사회적 성공과 출세를 부추겼다. 학업을 통한 지위상승의 가능성, 부자의 경제력의 힘이 가족의 친밀한 유대와 결속보

다 중요하다고 키운 것이다. 그 결과, 아이 셋은 모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성공을 하였다. 하지만, 할머니 곁에 살고 있는 자식은 하나 뿐이다. 두 자식은 해외에서 살고있어, 보고 싶어도 자주 만나지 못한다.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하는 자식을 마다하시는 이유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남겨 둔 추억이 담긴 집을 차마 떠날 수가 없으시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가끔 하시는 낯두리가 있다. "출세가 무엇이고, 성공이 무어라고, 유학까지 보내며 아이들을 타국에 보냈는지, 옆에서 살면 얼마나 좋아."

에이브러엄 매슬로우 (Abraham Maslow) : (1908-1970) 인간의 욕망에 대해 학계 최초로 학문적인 연구를 시도한 심리학자이다. 매슬로우는 개인의 행동을 결정짓는 동기요인으로 다양한 7단계 욕구 체계를 이야기한다. 크게 결핍욕구와 성장욕구로 설명한다. 결핍욕구: 1. 생리적 욕구-식욕,수면욕,성욕 등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욕구 2. 안전의 욕구-위기와 위협으로부터 보호 공포, 무질서, 제약 등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 3. 애정 및 소속의 욕구-타인과의 만족스러운 관계의 욕구로 사회적 욕구 4. 자존의 욕구-자신감과 성취감을 맛보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존경의 욕구 성장욕구: 5. 인지적 욕구-모르는 것을 이해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욕구로 호기심, 탐험, 의미추구의 욕구 6. 심미적 욕구-자연과 예술에서 질서, 조화, 미적 감각을 추구하는 욕구 7. 자아 실현의 욕구-자신의 발견과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꾸는 욕구이다. 결핍욕구는 동기요소가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곳에 있고, 결핍 욕구가 채워져야 성장욕구를 채우려 한다.

서분네 할머니가 생존해야 했던 시기는 기본욕구를 채우는 것도 힘이 들었던 시기다. 21세기를 맞이하여, 동족상잔인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50년만에 선진국대열에 섰다. 이렇게 눈부신 경제성장을 하면서, 매슬로우

결핍욕구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성장욕구의 진행이 참 더디다. 지난친 교육열, 일등주의는 여전히 자신의 꿈보다는 타인이 원하는 꿈을 선택하여,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을 받으려는 욕구에 고착되어 있는 느낌마저 든다.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은 사실, 한국을 선진국 대열에 올려서 한 토대가 되었다. '엄마의 정보력, 동생의 희생, 할아버지의 재력, 그리고 아버지의 무관심'이라는 대한민국 자녀의 성공 방정식은 (한겨레 2013) 우리나라의 만15세 학생은 OECD 34개국 중에서 수학 1위, 읽기 1~2위, 과학 2~4위를 차지하게 한 원동력이라 말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녀에게도 돈보다 학벌을 물려주는 게 최고의 유산이다"라는 공감대가 한국 문화에 있다. 모두들 너무나 각자의 일에 성실한 한국사회의 문화에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밀바탕이 되는 가족간의 애정 및 소속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보통 미국은 '개인주의'이고, 한국은 '집단주의'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실상, 미국에서 살다보면 미국의 '개인주의'는 사실 가족을 중시여기는 가족 중심의 문화에 밀바탕을 둔다. 타인의 눈을 의식한다기 보다, 부모의 주과수는 아이들과의 교류에 맞추어져 있다. 유병률 특과원은 자신의 칼럼을 통해, 한국 아버지와 실리콘밸리 아버지의 차이를 말한다. "미국의 '창조경제'는 정부의 슬로건이 만든 것이 아니라 1950~1960년대 '가정'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전후(戰後) 경제적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던 미국 중산층 아버지들은 퇴근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자녀와 시간을 보냈고, 자신의 관심과 자녀의 관심의 주과수를 맞추었다. 자신의 관심과 다르게 주과수가 맞지 않아도 존중하며 꿈꾸게 했다. 이런 전통은 몇 번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사회에 이어지고 있다. 회사에서는 '스몰 런치 (small lunch)'를 하면서 집중

적으로 일하는 대신,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자녀들과 '빅 디너 (big dinner)'를 하며 교감을 나눈다."

대가족이 주류였던 한국의 '집단주의'와 핵가족이 주류가된 현재 한국의 '집단주의'는 큰 차이가 있다. 가족의 교류보다 일의 성취도가 더 중요해진 현재의 집단주의는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 공부 잘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잘 버는 돈이 더 중요해진다. 공부 잘하기 위해 오는 스트레스,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마구 풀면서 짜증을 내는 일에 미안하지가 않다.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주어야 할 희생이라 생각한다. 이 이율배반적인 양상은 가족에게는 늘상 예의가 없고, 화가 나 있고, 타인에게는 너무도 다정하고 부드러운. 이런 가족 관계가 계속되는 한, 매슬로우의 결핍욕구를 벗어나기 힘들다.

주재원으로 보스톤에 2년을 머무르면서, 커플 테라피를 요청한 류박사는 미국의 가족 중심 문화가 처음에는 너무나 거북했지만, 가족과 시간을 많이 나누게 되면서 자신이 얼마나 가족에 무심했는지 깨달았다고 했다. 무심했던 자신 때문에 부인이 그토록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몰랐다고 했다. 한국으로 떠나며, 미국의 가족 중심 문화를 계속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한국 가족이 부럽지만, 자신도 일보다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일을 우선으로 하는 태도를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 살고있는 한국 가족은 우리 한국 아이들은 미국의 가족 중심의 문화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서분네 할머니는 기꺼이 말씀하신다. "학벌이 아니라,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가족이 최고의 유산이야!" 서분네 할머니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두 자식에 전해주고 말았음을 알고 계신다. 다음 번 슈퍼문 월식 2033년에는 대가족이 함께 모여, 하늘에 펼쳐지는 절세의 명작을 같이 나누자. 그렇게 최고의 유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대대로 전해주도록 노력해보자.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무제한 시청 월:

\$39.99



본문에 기재된 조건 이외에 일부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됩니다. 케이블 방송 수신권 보유 시 The Best On-Demand \$1.99로. 인터넷 TV 서비스는 일부 TV Provider, 인터넷으로 인해 일부 TV Provider 내선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며, 일부 서비스는 일부 지역에서만 제공됩니다.

The Best On-Demand, 티보

HURAM | 성형외과  
Medical Plastic Community

#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담 및 문의 뉴스코리아 김소라 972.247.9111 | weeple@newskorea.com

STAR ★ 동안  
 피부과·성형외과

## 대한민국 1등 피부과·성형외과 (구, 이화성형외과) 스타동안 피부과·성형외과

안면 거상술, 리프팅, 지방 흡입술, 지방 이식술을 잘하는 스타동안 피부과·성형외과외원에서 자신감을 찾으세요!

안면거상술 (탈출)	안면거상술 (목포함)	상안검	하안검	쌍꺼풀개방	매몰쌍꺼풀	얼굴자랑이식 (FRP포함)	코성형
<del>700만원</del>	<del>600만원</del>	<del>200만원</del>	<del>200만원</del>	<del>160만원</del>	<del>100만원</del>	<del>250만원</del>	<del>300만원</del>
500만원	600만원	120만원	120만원	110만원	80만원	150만원	240만원

-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아우르는 토탈 피부성형미용 원스탑 서비스
- 한국내 최초 항노화 전문 클리닉 개설 전문의 ● 성형수술 후 붓기케어 및 재생관리 서비스
- 모든 수술시 FDA 승인 받은 엄선된 정품 재료사용

Before & After



- 한국내 최신 레이저 장비 6대 보유
- 메디컬 카어 서비스 (호텔 내 병원 위치)
- 한국내 최초 수술보증제도

리본 뷰티메디칼그룹  
LIPOBON BEAUTY MEDICAL GROUP

섬세함과 꼼꼼함으로 100%의 예술을 만듭니다!

## 리본성형외과

- 1999년부터 현재까지 25년 의료무사고 병원
- 최첨단 의료장비 3D 성형 시뮬레이션
- 1mm의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시술



쌍꺼풀 매울 <del>120만원</del> 90만원	쌍꺼풀+ 눈매교정 <del>300만원</del> 200만원	눈썹거상+ 하안검 <del>360만원</del> 280만원
------------------------------------	--	--

보스톤 **뉴스코리아**

T. 617-955-9112

HURAM

해의의료사업팀장 김수남 82-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01) 주식시장의 과거

최근 주식시장이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며 투자자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은퇴한 사람에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요약한 글(You should know about bear markets, Paul Merriman)이 있습니다. 미래의 주식시장을 알 수 없지만, 과거 주식시장을 이해한다면 불안한 마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락 장세(Bear Market)란 비관론을 동반한 장기 하락장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침체하고 실업률이 높거나 인플레이션 상승이 가파를 때 일어나며 시장이 20% 이상 하락해서 60일 이상 지속하면 베어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60일 이내에 시장이 회복하면 주식조정(correction)이라고 합니다.

\*하락 장세는 1929년부터 현재까지 26번이 있었습니다. 평균 3.4년마다 주식 하락을 경험한 것이며 약 10개월간 지속하였습니다. 베어 마켓 하락이 가장 적었던 적은 21%(1949) 가장 심했던 적은 62%(1932)였

으며 평균은 35%가 하락했습니다.

\*투자자 모두가 기억하는 근래 하락 장세는 2000년과 2002년에 58% 폭락했고 2007년과 2009년에는 무려 57%가 폭락했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았던 투자자는 시장이 폭락할 때 두려운 마음에 손실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 후 6년 동안 현금을 보유한 채 200% 이상 상승한 혜택을 받지 못한 투자자가 많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한 것만은 아닙니다. 1929년 주식시장 호황기가 25년이었는데 평균 31개월 유지했습니다. 주식 상승 기간은 하락 장세보다 3배나 더 길고 평균 107%가 상승했습니다. 1987년부터 2000년까지는 주식시장이 582% 상승했습니다.

\*하락 장세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 주식시장이 하락한 것보다는 올라간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처럼 하락 장세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하락 장세는 투자자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이러한 마음보다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마음은 오히려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입니다. 한 예로 2000년 초에 거의 13년 동안 주식시장이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 투자하는 사람 모두가 투자만 하면 돈을 벌었습니다. 본인들이 투자 전문가(?)로 착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주식시장이 내려가면 갈팡질팡할 수뿐이 없습니다.

\*하락 장세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일어난 적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어느 회사가 이익을 창출하고자 끊임 없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 폭락을 피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투자하지 않으면 1926년 이후 연평균 수익률 10%를 받을 기회가 없는 것은 물론 물가상승으로 돈의 가치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지난 45년 동안 주식에 40% 투자하고

채권에 60% 투자했다고 합시다. 2008년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이러한 포트폴리오는 단 14.9%만이 하락했습니다. 연세가 70 이상 되신 분도 투자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이러한 식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하락 장세는 그야말로 투자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가격이 쌀 때 사서 장기간 투자하면 복리효과로 투자 돈이 크게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퇴가 목전에 있거나 이미 은퇴한 투자자에게 베어 마켓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산분배와 분산투자가 제대로 형성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하는 뚜렷한 목적과 장기간 투자하면 성공하는 투자로 이어집니다.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는 응급상황을 평상시처럼 잘 대처합니다. 주식시장 변화에 따라 마음이 불안해진다면 믿을 수 있는 재정설계사와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성기주 변호사 칼럼 이민 Updates (2015년 10월 2일)

1. e-Filing system 중단과 새로운 Electronic Immigration System 의 시작

이민국은 온라인으로 이민관련 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었던 e-Filing system 이라 불리는 제도를 지난 8월 30일로 중단했습니다. 이는 신청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더 보호하고 새롭게 시작한 Electronic Immigration System 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8월 30일 이전까지, e-Filing system 을 통해서 Form I-131 (여행허가서), Form I-140 (취업이민 신청서), Form I-765 (노동허가서), Form I-821 (임시거주허가서) 그리고 form I-907 (급행신청서)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e-Filing system 을 통해 위에 언급된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들은 9월 20일까지 모든 절차 (supporting evidence 등을 발송하는 등) 를 마무리 하시면 추가절차 없이 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이뤄집니다. 만약 이날짜까지 마무리 못하는 경우엔 다시 paper-form 을 보내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앞으로는 위에 기재된 신청서들은 반드시 paper-form 을 통해서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Electronic Immigration System 은 기존의 e-Filing system 과 같

이 온라인을 통해 이민관련 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케이스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실시간 케이스에 대한 update, notification 수신 등)도 신설 됐습니다. 하지만 10월 1일 현재 아주 제한된 신청서에 대해서만 이 system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F-1 학생의 합법적 노동

F-1 학생신분으로의 노동에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1 학생의 노동은 허용되지 않지만 몇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민국으로부터의 허가

이민국으로부터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라는 허가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EAD 를 받는 방법은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를 통해서 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학위를 마치면 12개월의 training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위를 마치지 않더라도 학업 중에서 OPT (Pre-completion OPT) 를 받으실 수 있지만 12개월을 넘지 못하며 Pre-completion OPT 를 쓴 기간 만큼 졸업 후 받으실 수 있는 Post-completion OPT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사람이 쓸 수 있는 total duration 은 12개월입니다. 또한, OPT 는 학위 당 한번씩 허용됩니다.

이민국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노동  
교내에서의 노동 (on-campus employment) 이나 CPT로 불리는 학업과 관련된 학기 중 노동은 별도의 이민국 허가 없이 학교의 DSO 의 허가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AD 분실

만약 EAD 를 분실하신 경우에도 분실한 EAD 에 명시된 만료일까지는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일 하실 수 있습니다.

Social Security Number

미국안에서 고용된 자는 반드시 Social Security Number 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DSO 로 부터 학생의 이름, 현재 이민신분, 하계될 일의 종류 등을 명시한 편지 (DSO Letter), 고용인으로부터의 고용 확인서 (Employment Letter) 와 EAD 를 준비해서 가까운 Social Security Office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Combining different forms of employment

F-1 학생신분으로는 On-campus employment (교내노동), Off-campus employment (교외노동), Pre-completion OPT (part-time only) 중 반드시 한가지 형태로만 노동이 가능합니다. 두개 이상의 형태로 노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내 cafeteria 에서 일하면서 OPT 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On-Campus Employment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교내노동은 학교의 F-1 학생 책임자 (DSO) 의 허가만 있으면 이민국의 허가 없이 허용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몇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a. Employer: 교내에 위치했다라도 사업의 주 목적이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교내 책방, 교내 식당 등 학생들이 주 고객인 사업이어야 합니다.

b. Commuting Distance: 취업한 학생의 통학거리가 75 마일 이내

c. Hours: 학기 중에는 part-time 만 허용되며 주 2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방학 중에는 full-time 도 허용됩니다.

d. Duration: 처음시작은 최대 학기 시작 30일 전부터 할 수 있으며 학업이 지속되는 한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졸업 (official end date of study) 계속 할 수 있습니다.

e. Recordkeeping: 교내노동에 관련된 되도록 모든 자료들은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칼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WisePrep 소피아선생님 (617-600-4777, us.herstory@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헌법 (Constitution) 의 탄생

1787년 9월 17일 - 미국 헌법의 초안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9월 17일은 미국 헌법의 날이다. 미국의 제한의회는 1787년 5월 14일에 필라델피아에서 시작되었으니 무려 4달의 산고 끝에 등장한 미국 헌법이었다.

### 필라델피아에 모인 건국의 아버지들

1787년의 헌법 이전 약 십 년 간의 미국은 이미 과거의 식민지가 이제 현재의 각 주로서 연합하여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는 연방 (Confederation)의 형태로 존재했었다. 또한 각 주 별로 주의 헌법이 하나씩 탄생하고 있었다. 이 각 주를 하나로 연합하는 법적 근거는 연합 헌장 (Articles of Confederation)으로, 연합 헌장은 독립 선언 (1776년)과 거의 동시에 초안 작성에 돌입, 독립 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781년 비준된 연방의 규약이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필라델피아의 제한의회로 모이기 전에, 신생 미국에서 연방차원의 중요한 결정은 연방의 규약에 의거, 연방 의회 (Confederate Congress)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독립 전쟁은 과도하게 중앙으로 집중된 정치권력은 독재 혹은 폭정 (Tyranny)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휘그 이데올로기에 철학적으로 기대고 있다. 게다가 13개 주 각각은 새로운 연방 체계 하에서도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주로서 존재하는 주의 자치권을 원했다. 이때문에 애초에 연

합 헌장은 연방의회가 각 주보다 많은 정치적 권한을 가지지 못하도록 의도를 반영하여 설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설계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었다. 가령, 중앙정부는 필요에 따라 관세를 설정한다든지, 각 주 혹은 개인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한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권한조차 없었고, 주간의 통상 (interstate commerce)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각 주가 알아서 외국과 교섭을 하건, 알아서 지폐를 발행하건, 독자적으로 군대를 가지건, 각 주 간의 서로 다른 법 체계로 분쟁이 일어나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제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기에, 신생 미국은 각종 혼란에 직면해 있었다.

각종 혼란의 와중에, 보다 강력한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연합 헌장을 대폭 수정해야한다는 일명 연방주의자들 (1790년대 연방파와 항상 동의어는 아니며, 여기서는 제임스 매디슨, 알렉산더 해밀턴 등이 해당한다)의 의견에 따라 1787년 5월 필라델피아에서 제한의회가 열렸다. 회의를 보이콧한 로드 아일랜드를 제외한 각 주에서 총 55명의 대표자가 필라델피아의 제한의회에 참석했다.

연합 헌장의 수정은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정부 구성을 의미할 수 있었다. 제한의회의 소집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 중 하나인 제임스 매디슨의 기초안대로 “새로운 정

부는 입법, 행정, 사법부로 이루어져야하고 ...” 는 회의의 방향을 결정했다.

논쟁과 타협, 그리고 논쟁 그리고 타협 제한의회의 성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논쟁과 타협의 연속이었다. 각 주는 서로 다른 문제에 대해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임스 매디슨의 초안은 일명 삼권 분립에 대한 전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한 데 이어 입법, 사법, 행정부 각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런데, 버지니아 출신인 매디슨의 안은 (버지니아처럼) 인구가 많은 주에게 유리한 방법의 중앙 정부 구성을 함축하고 있었다. 먼저 입법부 (Legislative Branch)는 상하원의 이원제 (Bi-cameral)로 구성하고, 하원 (Lower House)의 대표자수는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결정하고, 상원 (Upper House)은 하원이 결정하며, 그렇게 구성된 입법부가 각각 행정부와 사법부를 선출하는 것이 제임스 매디슨의, 일명 버지니아 안이었다. (Large State Plan으로도 불린다)

이에 인구수가 적은 주들이 반발한 것은 당연했다. 뉴저지의 윌리엄 패터슨은 그 자리에서 바로 카운터 플랜을 작성했다. 뉴저지 플랜은 연합 헌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주간 통상 등의 부분을 말 그대로 “수정

을 주장했다. 또한 입법부는 일원제로, 대표자수는 각주가 동일한 수의 대표자 선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뉴저지 플랜의 핵심이었다. 인구가 적은 주도 연방 체계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호받으려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양 진영의 대립은 어쩌면 회의가 무산되는 사태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타협. 버지니아 안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원제로, 그리고 하원은 각 주의 인구비례로 선출하되, 상원은 뉴저지 플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각 주가 동일한 수의 대표자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절충안이 마련되어 양 진영이 양보했다.

그러나 버지니아 안과 뉴저지 안 간의 대립이 해소되자마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즉, 하원의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 기반이 되는 “인구” 를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애초에 노예제에 크게 기대지 않았던 북부 주들은 노예제를 점차로 폐지시키고 있던 상황이다. 90%의 노예는 남부에 있는 상황에서 노예를 하원의 대표자 수를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인구로 계산할 것인지의 문제는 남북간 정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진 문제였다. 게다가 남부 주들은 투표 목적으로는 노예를 인구로 계산하기 원했지만 노예를 포함한 인구수가 과세기준이 되는 것은 원치 않았고, 북부 주들은 정 반대의 입장에 있었다. (다음 호에 계속)



백영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 주택의 가치 측정 방법

주택의 매매가격을 협상할때 바이어와 셀러는 항상 가격에 차이를 둔다. 셀러는 높은 가격을 바이어는 낮은 가격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주택가격에도 수학문제처럼 정답은 없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을 측정하는 3가지 기준이 있다.

주택감정: 주택감정은 융자은행에서 주택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전문 감정사에게 가치의 측정을 맡긴다.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의 입장에서 정확한 가치의 측정이 불가피하다. 5-6년 전의 일부 부동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주택감정사와 감정과정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만들었다. 융자인이 직접 감정사에게 접촉을 하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해고까지 당할수 있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주택감정은 가장 합리적인 주택가치 측정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주택감

정이 과학이 아니고, 감정사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가치의 산출이 5-10%까지 다르게 나올수가 있다.

인터넷 사이트 주택가격: 현대의 바이어들의 85%는 인터넷으로 주택을 검색해 본다. 현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주택에 대한 물리적 정보와 금융정보도 제공되고 있다. 세금, 융자 페이먼트, HOA 비용, 그리고 예상 주택가격.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애매한 가격이다. 측정방법에 대한 설명도 없고, 책임도 없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에 대한 맹신으로 믿는 경우가 많다. 오픈 하우스 중에는 종종 바이어들이 인터넷에서는 40만불인 집이 왜 50만불에 리스팅 됐냐고 의심에 가득찬 질문을 하기도 한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국의 모든 주택을 일일이 감정할 예산도, 방법이 없다. 인터넷 예상가격은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서 산출되는 예상가격이다. 지역, 크기, 건축연도, 방과 화장실 수 등을 만들어 놓은 방정식에 넣어서 산출하

는 것이다. 전문가 입장에서 인터넷 감정가는 참고로 하되 기준으로는 삼지 말아야 할것을 권유한다.

카운티 세금가치 가격: 각 카운티에서는 매년 주택세를 걷기 위해서 주택의 가치를 산정한다. 이 또한 카운티 나름의 계산 방법을 사용한다. 이 가격으로 주택세를 결정하기에, 자신의 주택이 생각보다 높게 산출되어서 더 높은 세금을 내고 있다면, 카운티에 재가치를 의뢰할수 있다. 이 또한 참고로 하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감정가격이 가장 높게 산출되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 가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운티 세금가격으로 가격이 나오는 편이다. 그러나 매물부족의 바이어 시장에서는 계약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셀러시장이 경우에는 감정가격보다도 낮은 매매 가격이 가능하다. 부동산 전문가는 셀러

와 바이어에게 현실적 결정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정확한 정보가 결국은 모두에게 빠르고 현실적인 이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 POSPay

world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본손: All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손: 20% 절약  
 돼지곰: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http://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 Lee Associates

# 이경해 부동산

##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앞선: 25% 현금다운, 프로젝트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 런드로맷(Laundromat) 상물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쪽 식당, 아침/점심 연매상 \$290,000+ 1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보스톤 풀 플랜트+드랍, 연매상 \$75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뉴햄프셔 남쪽 고급동네들,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소터(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보스톤 서쪽(RT.2) 드롭가게 연매상 \$200,000

프로비던스(로드아일랜드) 동양식당 연매상 \$330,000 브라운대학 근처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208,000 고급동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 \$900,000 여러장소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보스톤 북쪽 일식식당, 연매상 \$700,000 Beer&Wine 19년 만에 소유자 은퇴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드롭 보스톤서쪽(RT.2) 연매상 \$70,000 매매가격 \$29,000

네일살롱 캠브리지 연매상 \$190,000 매매가격 59,000

일식식당 풀 리커 면허증, 연매상 \$700,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연매상 \$310,000 연매상 \$270,000 각각 매매 가능

동양식당 변화한 푸드코드, 연매상 \$360,000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20,000 18년만에 은퇴

섬머빌 지역 런드로맷 연매상 \$115,000 좋은 렌트

네일살롱 매매, 여러장소 고급동네들 연매상 \$70,000 - \$910,000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9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 보스톤 교육원

###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 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 아카데믹 프로그램

SAT I(old, new)  
SAT Subjects/AP 수업  
최고 전문강사들의 수업  
실전문제 중심 수업  
주말수업(상시참여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전과목 개인과의 가능  
오전기간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님들로부터  
인정받은 최고의 강사들이 수업 합니다.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각종 경시대회 준비  
AMC, National Spanish/French/  
Latin Exam

### 2015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 기간: 11.21(토)~20(일)  
1. SAT I Class  
12월, 1월 시험대비 집중 프로그램  
-실전문제들이 중심의 수업  
-수업과 문제풀이의 총일 프로그램  
9:00-5:00  
-각 과목별 난이도에 따른 시간배분  
2. SAT II subject class  
Math II C, Physics, Chemistry  
3. AP 및 경시대회 준비 개인수업

### 학기중 주말 프로그램

• SAT I Class:  
1.기간: 9.05~1.16(2016)  
-4주 단위 등록  
-상시 등록가능  
-기술문제 풀이 중심의 집중코스  
2.시간표  
9:00~12:00 실전문제풀이  
12:00~1:00 점심식사  
1:00~4:00 수업  
• SAT II Class:  
-Math II C  
-Physics  
-Chemistry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 339.234.5255~7 / Fax. 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